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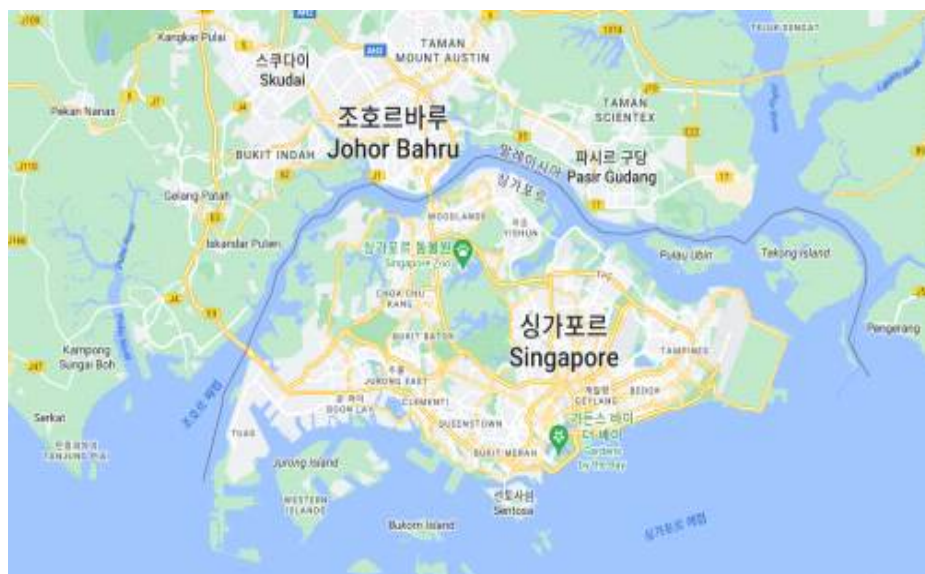


2023 순창교육지원청

글로벌 학생해외연수 자료집

테마 : 기술과 과학의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걷다!!!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 숙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연수기간 동안 학생답게 바르게 행동한다.**

유의사항	실천 내용
☆ 시간 지키기	출발 시간 엄수, 승차 시간 엄수, 취침과 기상 및 식사 시간 엄수 조장은 수시로 인원을 파악하여 인솔교사에게 보고
질서 지키기	승하차 질서 지키기, 관람 질서 지키기 교통질서, 거리질서, 보행질서, 식사예절 지키기
안전사고 예방	버스 승차 시 안전띠 매기 달리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지 않기, 차내 선반 위 가방을 안전하게 올려놓기 길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개인행동이나 위험한 행동 삼가기 사진 촬영 시 전후좌우 이상 유무 살핀 후 촬영하기, 위험한 곳 가지 않기
건강 관리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대비한 여벌 옷 준비하기 개인별 비상약 준비하기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즉시 담임선생님께 보고하기
소지품 관리	용돈은 필요한 만큼만 지참하기 기념품은 신중하게 구입하기, 고가의 물품 소지하지 않기
자연보호	차창 밖으로 쓰레기나 오물 버리지 않기, 각종 시설물 보호하기 음식 찌꺼기나 휴지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차 안에서는 봉지에~
학교폭력 금지 ☆	위험할 때는 피하고, 도움을 요청한다.(가족, 선생님, 친구 등) 피해 상황일 때는 거부 의사를 당당하게 말한다. 자신의 불만을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 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했을 경우 처벌 받는다는 것을 명심한다. 피해당하는 친구 입장 생각하기
소란행위 지도	차내에서는 자리에 앉기, 운행 중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 버스 안에서 고성방가 금지,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할 경우 이어폰 사용하기 이동 중 거리에 침 뱉거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기 베개싸움 금지, 소리 지르며 뛰지 않기 숙소에서 떠들지 않기 및 베란다 밖으로 나가 장난치지 않기 - 추락 주의
제한구역 통제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기, 지정된 숙소에 입실하기 무단외출하지 않기, 각종 오락장 출입 금지, 한적한 곳에 가지 않기
☆ 성추행 및 성폭력 예방	모르는 사람의 차를 절대 타지 않고, 의심이 드는 사람과 대화 하지 않는다.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모둠별로 움직이고, 다른 숙소의 출입은 금지한다. 누군가 으스스한 곳으로 데려가면, 선생님이 기다린다면서 빨리 뛰어간다.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지 않고, 항상 친구들과 함께 있다. 친구의 신체에 대하여 장난하거나 놀리지 않는다. 성적인 농담 및 장난을 절대 하지 않는다. ※ 급한 상황엔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65 6256 1188

이것만은 꼭 지켜요~♡

※ **소지 금지** : 인화 물질, 담배, 주류, 귀중품 등 학생 신분엔 맞지 않는 물품

준비사항

☐ 학생답게 입어요!

- 간편한 옷, **차량용 바람막이**
- 잠옷 또는 체육복
- 운동화, 소지품 넣을 가방

☐ 미리 대비해요!

- 우천대비 우산 또는 우비
- 항사대비 마스크

☐ 배우고 익혀요!

- 글로벌 학생해외연수 자료집
: 미션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필기구
⇒ 체험 후에 제출(6/12일)

☐ 건강을 챙겨요!

- 개인 상비약, 멀미약
- 세면도구
- 검정비밀봉지, 휴대용 화장지

기억해야 할 사항

☐ 차 안에서

-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죠!
안전벨트 착용해요!
- 쓰레기는 비닐봉지에 넣도록
해요!
- 게임이나 통화할 때 조용히!
이어폰을 사용해요!

☐ 목적지에서

- 전시관 견학 시에는 한 줄 질서
지켜요!
- 자료집과 함께하며 재미있는
미션 수행
- 언제 어디서든 모둠원들과
함께하는 우리
- 5분 먼저라는 생각으로 약속
장소에 미리 모여요!

☐ 언제 어디서든!

- 순창교육지원청 학생의 명예
를 지키고 바른 행동하기!

이동 계획 및 세부 일정표

□ 일정별 계획

※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날짜	시간	학습주제 및 일정
1일차 5.29. (월)	08:00	집결지(순창교육지원청) 출발 → 인천공항
	13:00	중식(공항 인근 식당)
	13:30	[문화체험] 인천 국제공항 도착 및 출국 수속
	16:10	[현장탐방] 공항 관련 승무원, 사무원 출·입국심사원, 기타 서비스직 등
	22:30 (현지시간)	호텔 이동 도착 후 방 배정, 휴식
2일차 5.30. (화)	07:00~08:00	기상 후 조식(호텔식)
	09:00	[모둠활동] 머라이언 파크에서 싱가포르 랜드마크 찾기, 인증샷
	10:30	[학교방문] 싱가포르대학교 : 한국 유학생, 현지학생과 학교 탐방, 질의&응답
	12:00	[음식문화체험] 중식: 현지 ‘김치찌개’와 우리나라 김치찌개 비교 분석
	14:00	[학교방문] 니안 폴리테크닉 - 현지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주변 환경 탐방 - 미션 수행: 선생님 인터뷰, 기사 쓰기
	16:00	[모둠활동] 주제별 미션 수행 - 아랍스트리트 탐방을 통한 싱가포르 문화 이해 활동
	18:00	[문화체험] 석식: 세계의 음식 맛보고, 발효음식 찾아보기
	19:00	[환경생태교육] - 가든스바이더베이: 플라워 돔 - ‘스마트 팜’ 기술과 환경생태, 자연친화적 정원 기술
	20:00	호텔 휴식 및 모둠별 과제 수행
	22:30	취침
3일차 5.31. (수)	07:00~08:00	기상 후 조식(호텔식)
	09:00	[현장탐방: 기술로 들여다보는 싱가포르1] - 미래 건축기술의 집합체, 센토사섬의 역사와 건축 원리 - 케이블카, 루지의 ‘과학’ 원리 찾아보기
	12:00	[문화체험] 중식: 싱가포르식 피자, 스파게티 맛보기
	13:00	[문화탐방] - 영화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통해서 본 할리우드 영화제작, 엔터테인먼트 이해, 레드카펫 서 보기
	18:00	[문화체험] 석식(밀쿠폰): 싱가포르 거리 음식 맛보기
	20:00	[문화체험: 기술로 들여다보는 싱가포르2] - 수륙양용 교통수단: 리버보트 체험

4일차 6.1. (목)	22:30	취침
	07:00~08:00	호텔朝食
	09:00~10:30	[모동활동] 포트캐닝파크 해설사 되기 - 역사, 음악, 생태, 건축 등 모동별 주제 선택 인터뷰, 동영상 제작
	10:30~13:00	[학교방문] GESS(독일 국제학교): 언어 및 스포츠 수업 참여 - 미션 수행: 언어교환, K-스포츠 공유하기 - 학교 견학 및 구내식당 이용
	13:00	[문화체험] 중식: 현지식 스팀보트와 우리나라 샤브샤브 비교 체험
	14:00	[역사.문화교육]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방문 조별 미션 수행
	17:00	[음식문화체험] 석식: 현지 ‘불고기’와 우리나라 불고기 비교.분석
	18:30	[현장탐방] 국제공항의 보석 ‘주얼 차이공항’ - 실내 폭포 레인 보텍스를 통해 본 싱가포르 ‘기술’
	20:00	[문화체험] 공항도착 및 출국 수속
5일차 6.2. (금)	22:30	싱가포르 공항 출발
	06:00 (한국시간)	인천 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07:30	버스 탑승 후 출발
	12:00	[문화체험] 중식: 전주 인근 식당
	14:00	집결지(순창교육지원청) 해산

□ 학교 방문 및 수업 참여

순	날짜	학교명 : 담당자	학교급	시간	내용
1	5/30 (화)	싱가포르 대학교	대학교	10:30~12:00	- 한국 유학생과 현지학생 인솔 대학탐방 - 질의 & 응답
2	5/30 (화)	니안 폴리테크닉 : 수석강사 Joshua Low	고등 학교	14:00~14:30	- Ngee Ann Polytechnic 도착 -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강의 참관
				14:30~15:00	- Ngee Ann Polytechnic 로봇 연구 및 혁신센터 방문
				15:00~15:20	- 폴리테크닉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논의
				15:20~15:50	- 재학 중인 한국 학생의 경험 공유 및 질의 & 응답
3	6/1(목)	GESS (독일 국제학교) : Ares Tan	중학교	11:00~11:40	〈언어 수업〉 - 언어교환(한국어, 독일어) - 드라마 표현 배우기
				11:40~12:30	- 학교 견학 및 구내식당 점심식사
				12:30~13:00	〈스포츠 수업〉 - K-스포츠(태권도) 수업 나누기

□ 조별 탐구활동

조	주제	학습 내용		모둠원
1조	건축 문화	1일차	싱가포르 건축물의 특징 파악하기	양광수 최규민 오동윤 고은서 신지원
		2일차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건축양식 구분하기	
		3일차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알아보기	
		4일차	싱가포르 랜드마크 앞에서 인증 샷 찍기	
2조	음식 문화	1일차	싱가포르 음식과 우리 고장 음식의 특색 알아보기	김정목 양승찬 양지인 이햇살 한미영
		2일차	싱가포르의 발효음식 찾아보기	
		3일차	순창과 싱가포르의 발효음식 비교하기	
		4일차	순창과 싱가포르의 발효음식 비교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3조	지속 가능한 환경	1일차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관광자원 비교하여 파악하기	김태은 임원호 김준휘 전정의 이채린
		2일차	싱가포르의 자연친화적인 관광사업 알아보기	
		3일차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원 파악하기	
		4일차	싱가포르만의 자연친화적인 기술에 대해 발표하기	
4조	기술 발전	1일차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IT 기술 비교하기	김다현 이우진 이성빈 이지은 전희주
		2일차	방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술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3일차	폴리테크닉 학교의 디지털 교육 환경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설명하기	
		4일차	싱가포르의 기술의 특징에 대해 발표하기	

□ 조별 역할

- 학생 대표: 임원호
- 학생 부대표: 한미영

구분	조 이름	조장 미션수행 총괄	역할				비고
			연락	사진 및 동영상촬영	자료수합. PPT제작	발표	
1조	인재숙조	오동윤	오동윤	고은서	신지원	양광수	
2조	SC 맛탐사조	양승찬	양지인	이햇살	김정목 양승찬	한미영	
3조	리미티드 에디션조	임원호	이채린	김태은	전정의 김준휘	임원호	
4조	싱포IT조	이성빈	이성빈	김다현	이우진 전희주	이지은	

□ 방 배정표(오키드 호텔)

순	명단	객실번호	비고
1	김다현, 김태은		학생(여)
2	임원호, 김준휘		학생(남)
3	양광수, 전정의		학생(남)
4	최규민, 김정목		학생(남)
5	이우진, 오동윤		학생(남)
6	이성빈, 양승찬		학생(남)
7	이지은, 고은서		학생(여)
8	양지인, 이채린		학생(여)
9	이햇살, 전희주		학생(여)
10	신지원, 한미영		학생(여)
11	임정진, 김현숙		인솔교사, 장학사
12	김동현, 김중소		인솔교사, 장학사
13	남상길		교육장

학습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해보아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감상



개봉 2018.10.25.
등급 12세 관람가
장르 멜로/로맨스, 코미디
국가 미국
러닝타임 120분
배급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주)

이 영화는 싱가포르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이다. 2019 24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코미디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뉴요커 레이첼은 남자친구 닉의 절친 결혼식이 열리는 싱가포르로 향합니다. 처음으로 아시아를 방문한다는 설렘도 잠시, 닉의 가족을 만난다는 사실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닉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자 모두가 선망하는 결혼 후보 1순위 신랑감이었던 것.

이 영화는 멜로영화이지만, 싱가포르의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추천하였으니 교육적 시각에서 감상해주시기 바랍니다.

1,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을 감상하고...

☞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인가?

☞ 가장 기억에 남는 싱가포르만의 장면을 꼽아 보세요.

〈머라이언 파크〉 방문



- 머라이언은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상반신은 사자의 머리, 하반신은 물고기의 꼬리를 가집니다. 싱가포르의 어원인 '사자의 나라'와 해운산업의 상징인 '물고기'를 나타냅니다.
- 미국의 대통령이 묵은 호텔이 있습니다.
- 머라이언에서 쏟아지는 물을 받아먹어 보세요. 아마도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인생 샷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2. 〈머라이언 파크〉를 방문하고 느낀 점은...

☞ 모둠원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포즈를 취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과 호텔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싱가포르 국립대학〉 방문



- 싱가포르 국립 대학은 1905년에 설립된 싱가포르의 가장 오래된 종합 국립 대학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학 중 상위10위, 더 타임즈 선정 세계 우수대학중 18위로 미국의 동부 명문대학들(Ivy League)과 같은 수준의 초일류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기관이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최고위 관리들이 이 대학 출신이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인재 및 소프트파워는 위에 두 대학에서 배출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교수진의 50%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리 학생들과 싱가포르 국립대학 재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싱가포르 국립 대학의 상징성,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싱가포르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 지, 그리고 미래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위한 설명을 듣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3.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방문하고 느낀 점은...

☞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어떤 학교라고 느꼈나요?

☞ 우리나라 유학생과 현지대학생을 만나 나눈 이야기 중 가장 기억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Sin 만복> (한식당)



> Sin 만복

- 메뉴 : 부대찌개, 불고기, 라면사리, 밥, 5종의 밑반찬
- 주소 : 116 Neil Rd, Singapore 088853
- 전화번호 : +65 6536 3424

싱가포르에서 맛보는 우리 한식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현지식으로 식사를 못한 학생들에게 원기를 보충하고, 한식의 우수성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만복> 현지에서 맛본 한식은 어떤 의미였나요...

<Ngee Ann polytechnic> 방문



- Ngee Ann polytechnic은 116년에 1963명의 학생들로 문을 열어 언어와 상업 및 기술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는 36개의 학업학교를 통해 13개의 풀 타임 디플로마 과정과 공통 입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소: 535 Clementi Road, 싱가포르 599489(<http://www.np.edu.sg>)
- 전화: 6466 6555
- 메일 asknp@np.edu.sg

5. <Ngee Ann polytechnic>을 방문하고 느낀 점은...

☞ Ngee Ann polytechnic는 어떤 학교라고 느꼈나요?

☞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장면은 무엇인가요?

〈아랍 스트리트〉 미션 활동



- 현지 가이드를 통해 싱가포르의 다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 송수신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교육내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미션을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많은 배움이 일어나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미션: 수행 후 구글 크렐스룸에 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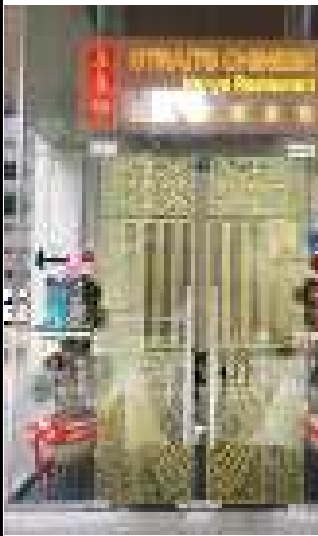
- 아랍스트리트 모스크에서 모둠 전체 사진찍기
- 미슐랭 식당 찾아 인증샷 찍기

6. 〈아랍 스트리트〉를 방문하고 느낀 점은...

☞ 아랍스트리트는 어떤 거리라고 생각 되었나요?

☞ 모둠원들과 한 미션 중에 가장 이상 깊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STRAITS CHINESE>



> STRAITS CHINESE

- 메뉴 : 페라나칸식 치킨카레, 씨푸드 롤, 새우튀김, 어묵 & 돼지고기 탕수육, 야채볶음, 어묵탕, 밥
- 주소 : 133 Cecil St, #B1-01 Keck Seng Tower, Singapore 069535
- 전화번호 : +65 6225 8683

다민족 국가답게 중국음식과 이슬람음식의 퓨전음식이다.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랭 선정 식당이라서 더 특별한 식당으로 기대됩니다.

7. <식당> 맛본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은 어땠나요...

☞ 요리의 이름은?

☞ 어떤 조리법을 사용했다고 생각되나요?

〈가든스 바이더베이〉 방문



- 마리나 베이의 물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둥 없는 온실입니다. 온실 안에는 에어컨이 보이지 않는데 시원합니다. 그 이유는 냉각수를 바닥 쪽으로 흐르게 해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하니, 또 다른 기술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 각 대륙별, 나라별 정원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 거대한 플라워 돔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8. 〈가든스 바이더베이〉을 방문하고 느낀 점은...

☞ 가든스 바이더베이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식물은?

☞ 자연친화적인 싱가포르의 정원기술 중 가장 인상깊은 것은 무엇인가요?

〈센토사섬〉과 〈유니버설 스튜디오〉 방문



센토사 섬은 인공섬으로 싱가포르의 아픈 역사가 묻힌 곳입니다. 지금은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 그리고 센토사섬에서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것! 유니버설 스튜디오 방문을 통해 싱가포르의 기술과 혁신을 공부할 것입니다.
- 루지 체험 등 현지와 몸을 부딪치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자신감 형성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세요~

9. 〈센토사 섬과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체험하고...

☞ 내가 탄 가장 신났던 체험활동을 세 개만 고르면?

☞ 센토사섬에서 가장 의미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루지는 체험한 소감은 어땠나요?

<Sin Hoi Sai Seafood Restaurant>



> Sin Hoi Sai Seafood Restaurant

- 메뉴: 칠리크랩, 씨리얼프로운(새우튀김), 프리어번(뽕), 볶음밥, 야채볶음, 탕수육
- 주소 : 55 Tiong Bahru Rd, #01-59, Singapore 160055
- 전화번호 : +65 6223 0810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음식인 칠리크랩을 특식으로 제공합니다. 식당 특징으로는 현지인에게 더욱 사랑받고 있는 식당이라고 하니, 이 식당 만의 훌륭한 맛을 찾아보기를 기대합니다.

10. <Sin Hoi Sai Seafood Restaurant>의 칠리크랩 요리는요...

☞ 칠리크랩의 맛은 어땠나요?

☞ 우리나라의 새우요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리버보트〉 체험



- 싱가포르 대표적인 볼거리인 야경을 보트를 탑승하여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학생들에게 구명조끼의 위치를 알려주어 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며, 배 위에서의 장난은 절대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11. 〈리버보트〉를 체험하고...

☞ 리버보트를 타면서 바라본 싱가포르의 야경 중 가장 인상깊었던 곳은?

☞ 리버보트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포트 개닝 파크〉 해설사 되기



언덕에 위치한 유서 깊은 이 랜드마크는 중세시대 말레이인 왕족이 싱가포르를 다스리던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영국군이 싱가포르를 침략한 일본군에게 항복한 곳이지만 지금은 가장 큰 규모의 음악 행사가 열리는 곳이 되어 음악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남아있습니다. 고대 유물과 콘서트용 야외 잔디밭,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곳이며 전통관에서 각기 다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12. 〈포트 개닝 파크〉를 방문하고 느낀 점은...

☞ 포트 개닝 파크에서 가장 신기한 식물은 무엇인가요?

☞ 신기하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 포트 개닝파크에서 말레이 왕족의 무덤을 찾아 개요를 작성해보세요.

☞ 신석기 유적을 찾아, 발견된 유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써보세요.

<싱가포르 독일 국제학교(GESS)> 방문



- **German European School Sinapore(GESS)**는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독일국제학교이다. 독일식 커리큘럼과 IB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18개월~18세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초.중.고가 같은 캠퍼스에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도 동그란 형태로 지어져 있고, 가운데에 조경과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건축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ss.sg>

13. <싱가포르 독일국제학교>를 방문하고...

☞ 수업 활동에서 본인이 참여한 내용과 배운 점이 무엇인가요?

☞ 싱가포르 독일국제학교에서 가장 인상깊은 점은 무엇인가요?

<suki-ya>



> suki-ya

- 메뉴 : 소고기, 돼지고지, 닭고기, 각종 어묵류, 각종야채 및 면류
 - 주소 : 68 Orchard Rd, #04-62, Plaza, Singapore 238839 (Plaza Singapura 內)
 - 전화번호 : +65 6835 9406
-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샤브샤브를 스팀보트라 합니다. 고기는 무한리필로 제공되며, 다만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나머지 음식은 셀프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음료, 과일 별도 요금 발생)

14. 싱가포르 음식점 <수키야>를 방문하고...

☞ 스팀보트는 어떤 요리인가요?

☞ 우리나라의 샤브샤브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기본 지식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외부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동으로 통제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15.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을 관람하고 흥미로웠던 점은...

☞ 가장 인상깊었던 유물은?

☞ 가장 재미있거나 인상깊었던 점은?

<미미> (한식당)



➤ 미미

- 메뉴 : 김치찌개, 불고기, 밥, 6종의 밑반찬, 전
- 주소 : 2 Peck Seah St, #01-01 Air View Building, Singapore 079305
- 전화번호 : +65 9114 9510

색다른 맛의 제육볶음, 김치찌개, 전 등 현지에서 맛보는 한식의 새로운 매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현지에서 한글로 쓰여진 간판을 보는 반가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6. <미미> 평범한 한국 백반을 싱가포르 현지에서 맛 본 감동을 기록해 보아요...

〈쥬얼 창이 공항〉 방문



- 쥬얼 창이 공항은 교통기관을 넘어서 싱가포르의 기술과 자연의 허브입니다. 또,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Moshe Safdie가 디자인하였고, 터미널 1의 입국장과 연결되며 터미널 2 및 3에서 보행자 전용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레스토랑, 고급 브랜드, 멋진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폭포인 레인 보텍스는 4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관람하게 합니다. 포레스트 밸리에 심어진 2,000그루의 나무들도 인상깊습니다.

17. 〈쥬얼 창이 공항〉을 방문하고 느낀 점은...

☞ 쥬얼 창이 공항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무엇인가요?

☞ 인천 공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키드 호텔〉



➤ 호텔명 : 오키드호텔(Orchid Hotel) : 4성급 호텔

- 주소 : 1 Tras Link, 싱가포르 078867 - 전화번호 : +65 6818 6818

호텔 주변에 유해 요소 없고, 바로 앞에 공원과 마트 등 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약 1km정도 떨어진 거리에 싱가포르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어 비상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가 예상됩니다. 2박3일 동안 여러분의 편안한 숙식을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 〈숙소〉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3박은 어땠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키드 호텔 조식〉



- 오키드호텔(Orchid Hotel) 조식
- 아침식사 장소는 3층에 있으며, 외부로는 수영장이 보여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자유시간에 수영을 즐길 수도 있어요.
- 식사내용은 볶음밥, 쌀국수, 빵, 달걀 요리, 소시지, 불고기, 계란구이, 카레, 스프, 요구르트, 시리얼, 과일, 샐러드, 옥수수, 고구마등 약 20여가지 음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쌀국수 및 계란 요리는 즉석에서 해 줍니다.

19. 〈호텔 조식〉에서 싱가포르만의 특징을 느낀 것이 있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연락해요!

<비상 연락망 체계>

병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싱가포르 종합병원	Outram Rd, 싱가포르 169608	+65 6222 3322
싱가포르 화재 및 응급		995

****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파악**

- ▶ 주소: 47 Scotts Road GoldbellTowers #08-00(대사관)
-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65 6256 1188, FAX: +65 6258 3302
- ▶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5 9654 3528

<보고서>

글로벌 학생해외연수 보고서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학 교		성 명	
체험학습일	2023년 5월 29일(월) - 6월 2일(금)		
체험학습 장소	싱가포르		

글로벌 학생해외연수 또 오고 싶어요!!!	
글로벌 학생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느낌 또는 소감을 쓰세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좋았던 학습 장소는 어디인가요?	
글로벌 학생해외연수에 대한 좋은 의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기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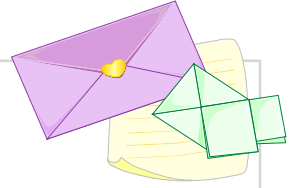
가장 멋있었어요!!!	
<p>글로벌 학생해외연수에서</p> <p>좋았던 학습 장소 또는</p> <p>인증 사진</p> <p>붙이는 곳</p>	<p>글로벌 학생해외연수에서</p> <p>좋았던 학습 장소 또는</p> <p>인증 사진</p> <p>붙이는 곳</p>
장소 :	장소 :

가장 신났어요!!!	
<p>글로벌 학생해외연수에서</p> <p>모둠원들과 찍은</p> <p>인증 사진</p> <p>붙이는 곳</p>	<p>글로벌 학생해외연수에서</p> <p>친구들과 찍은</p> <p>인증 사진</p> <p>붙이는 곳</p>
장소 :	장소 :

글로벌 학생해외연수 자기 평가서

()학교 학번() 이름()

항목	실 천 내 용 (잘함 0 보통 △ 잘못함 X)	5/29	5/30	5/31	6/1	6/2
승하차 질서	① 질서 있게 승하차하며 지정된 좌석에 앉는다.					
	② 운행 중에 팔, 머리 등을 차창 밖으로 내밀지 않는다.					
	③ 차내에서 고성방가, 음주흡연하지 않는다.					
	④ 모든 행동을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관광지 관람 등의 질서	⑤ 기념물이나 중요시설 등을 아낀다.					
	⑥ 질서와 품위를 지킨다.					
	⑦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다.					
	⑧ 고적이나 문화재 관람은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한다.					
	⑨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⑩ 자연보호를 생활화한다.					
숙박 질서	⑪ 취침지도계획에 따른다.					
	⑫ 안전사고에 주의한다.					
	⑬ 세면시설,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한다.					
	⑭ 하루의 일정을 기록하고 견학, 감상, 소감 등을 기록, 정리한다.					
	⑮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식사 질서	⑯ 식사예절을 지킨다.					
	⑰ 식사는 알맞은 양을 먹도록 하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⑱ 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는다.					
	⑲ 과식, 식중독에 주의한다.					
	⑳ 질서를 지킨다.					



2023 순창교육지원청 글로벌학생해외연수

<학습자료>

1. 싱가포르의 영토와 국민

싱가포르는 말레이반도 남쪽에 있는 섬나라이다. 인도네시아 군도의 가장 큰 섬 가운데 하나인 수마트라섬과 므라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싱가포르를 조호르 해협을 경계로 말레이시아와 분리되어 있다. 동서로 약 52km, 남북으로 약 27km에 이르는 싱가포르는 6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약 564만 명이다.



동남쪽 해안에 위치한 싱가포르 도심에는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이 초현대적 건물, 그리고 높이 솟은 마천루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몇몇 빌딩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부킷 티마보다 더 높이 솟아 있다. 이런 빌딩에는 스마트 오피스와 5성급 호텔, 화려한 상점이 들어서 있다. 싱가포르 도심의 경관을 이루는 요소는 즐비한 마천루이지만 도시를 푸르게 가꾸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많은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공항에서 도시로 진입하는 길에는 야자나무와 자카란다 외에도 화려한 부겐빌레아와 프랜지파나가 줄지어 늘어서 있고, 도시 외곽의 간척지에는 101만㎡ 규모의 싱가포르 최대 식물정원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이 더 베이이 있다.

가. 기후

싱가포르르는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를 띤다. 적도를 기준으로 정확히 북위 5°에 위치해 1년 내내 덥고 습하거나 혹은 ‘매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11월에서 1월까지 지속되는 우기에는 폭우와 함께 종종 홍수가 발생하며 기온이 30℃에서 23℃로 낮아진다. 가장 덥고 습한 기간은 3월에서 7월 사이이고 연중 내내, 보통은 오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세찬 폭우가 쏟아진다. 많은 관광객이 이런 무더운 날씨에 대한 주의를 듣고 싱가포르에 갔다가 감기에 걸리기도 한다. 호텔과 고급 식당에는 강력한 냉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바깥 기온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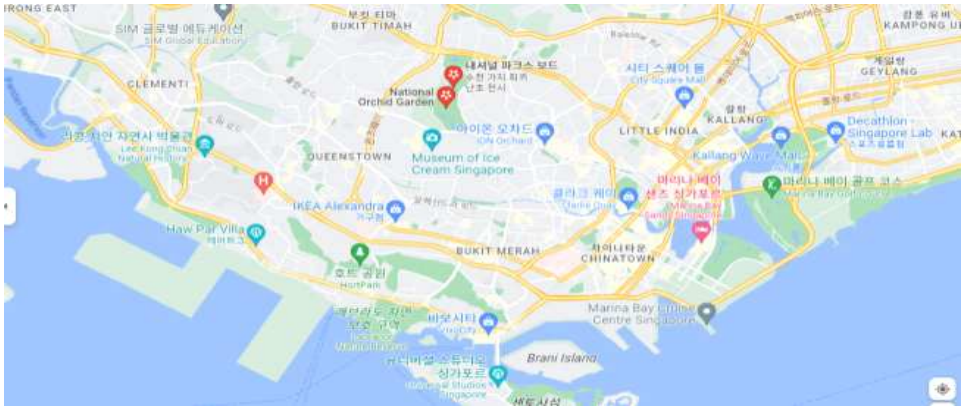
보라색 자카란다



프랜지파니

나. 동식물

싱가포르의 국화는 자주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진 난초이다. ‘반다 미스 조아킴’이라는 이 자연 교배종은 같은 이름의 아그네스 조아킴 여사의 정원에서 처음 발견되어 이후 보타닉 가든에 증정되었다. 국가적 상징물인 이 난초는 관광객의 장신구와 정치인의 티셔츠는 물론, 공항 판매대의 잘 포장된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원예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셔널 오키드 가든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안에 있는 이 오키드 가든에서는 1,000여 종의 난초와 2,000여 종의 교배종을 만날 수 있다. 오차드 로드 인근에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30km 규모의 보타닉 가든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으로, 싱가포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 이곳은 1859년 설립된 후 고무산업의 본고장으로 유명해졌다.

	
<p>싱가포르의 나라꽃 ‘반다 미스 조아킴’</p>	<p>내셔널 오키드 가든</p>



2012년, 정원예술의 상징물로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이 새롭게 개장했다. 100만 종이 넘는 식물과 유명한 슈퍼트리야 밤에는 페라나칸(중국과 말레이 혼합 문화와 인종) 풍의 다채로운 빛으로 빛나고 슈퍼트리 주변으로는 공중 산책로인 스카이웨이가 이어져 있다. 또 헤리티지 가든과 협곡, 거대한 유리돔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돔 가운데 하나인 클라우드 포레스트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 폭포가 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부킷 티마는 최대 우림 지역으로 꼽힌다. 많은 방문객이 마카르원숭이를 보며 정상까지 거니는데, 가벼운 하이킹을 하려면 하루 중 가장 더운 때

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선선한 저녁에 하는 편이 좋다.

싱가포르의 중심에는 맥리치 저수지가 있다. 1867년, 자선사업가인 탄김생이 만든 이 맥리치 저수지는 자연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저수지 네 곳 중 하나로, 조깅하는 사람과 수상 스포츠 애호가에게 인기 있는 장소이다.

다. 민족구성

싱가포르는 이민자의 나라이다. 사실 19세기까지 싱가포르는 해안가의 작은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다. 이후 영국이 이곳을 전략적 해군기지와 상업적 발판을 마련할 거점으로 바꾸면서 대규모의 이민자, 특히 중국에서 많은 사람이 이주해왔다. 전체 인구에서 중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말레이인과 9%를 차지하는 인도인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싱가포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용어는 영어, 표준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총 4개이다.

【중국인 이민자】

19세기, 중국의 청나라가 쇠퇴할 무렵 많은 중국인이 가혹하고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었으며 빈곤이 만연해 해안 지방 사람들은 중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1821년, 싱가포르로 향하는 첫 번째 정크선이 중국의 샤먼(아모이)에서 출항했고 1827년 무렵에는 중국인이 현지의 말레이 인구보다 훨씬 크게 증가했다.

영국인은 중국인을 강인하고 근면하다고 여겨 이민을 장려했다. 많은 중국인이 문맹이었고 무일푼이었지만 일단 이민에 성공하고 나면 번창했다. 일부는 말레이반도의 주석 광산과 싱가포르 부두에서 일하기 위해 계약 노동자로 이주해왔고 이후 이들은 막노동자, 농부, 상인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계 싱가포르인은 푸저우에서 남중국해로 흐르는 민장강, 샤먼의 주룽강, 산터우 인근의 한장강, 광둥 남쪽과 홍콩 맞은 편에 위치한 주장강, 이 4개 강의 삼각주에서 이들의 혈통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인이고 같은 문자와 언어를 공유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민족 출신이며 고유의 방언을 쓰고 고유의 지역 문화가 있다. 푸저우 출신은 민둥어를 쓰고, 샤먼 출신은 민난어를, 산터우 출신은 푸젠 방언을, 주장강 삼각주와 광저우 출신은 스스로를 광둥사람이라 칭하며 광둥어를 쓴다. 이런 차이로 인해 이주 초기 싱가포르에서는 파벌주의와 씨족 갈등이 발생했다. 현재 싱가포르의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고유 방언을 쓰지만 젊은 중국계 싱가포르인은 표준중국어を 쓴다.

【해협 중국인 혹은 페라나칸】

15세기, 므라카와 페낭에서 옛 중국 가계의 후손인 한 무리의 중국인이 싱가포르에 도착한다. 현지의 말레이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의 후손을 해협 중국인 혹은 페라나칸이라고 한다. 해협 중국인 여성은 말레이 스타일의 옷을 입었으며 ‘논야’¹⁾라고 불렸다. 이들은 향긋한 뿌리채소와 허브, 칠리 외에도 코코넛 밀크 같은 전형적인 말레이 재료를 사용해 요리했고 말레이 이슬람교도에게는 당연히 금기시되는 돼지고기를 전통 말레이 재료와 함께 사용했다.

교육을 받고 경제력을 갖춘 해협 중국인은 곧 스스로 영국 식민통치의 매우 중요한 일부로 여겼다. 의사, 변호사, 교사가 되기도 했고, 특히 목재와 고무 무역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영국인보다 더 영국인같이 행동하며 종종 사람들로 부터 조롱을 받았다.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신문을 발행했고 당구를 치고 브랜드를 마시는 등 식민지를 지배하는 영국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다.

이들은 새로운 중국인 이민자와 사회적으로 교류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본토에서 일어나는 일, 중국의 낡은 통치체제를 개혁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통했다. 중화민국의 임시 초대 대통령이 될 쑨원이 싱가포르에 은신처를 찾을 당시, 해협 중국인 테오응훅이 자신의 대저택을 제공하였다. 1964년, 싱가포르 정부는 쑨원과 그의 민족주의 혁명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과거 쑨원이 체류했던 빌라를 복원했다.

【말레이 공동체】

싱가포르의 토착 말레이인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난 수천 명의 중국인 이민자로 인해 수적으로 금방 열세해졌다. 그러나 말레이 공동체의 힘은 말레이어가 싱가포르의 공용어가 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 헌법은 싱가포르 토착민으로서의 말레이인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싱가포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말레이계인 할리마 야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인도 공동체】

전체 인구의 약 9% 밖에 되지 않는 인도계 싱가포르인은 종교적, 언어적, 경제적으로 여러 다양성을 나타내지만 이들의 60%는 타밀계²⁾ 후손이다. 뛰어난 사업적 수완으로 유명하며 교육, 정치, 외교, 법률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1) 남성은 ‘바바’라고 부름

2) 타밀족은 인도 동남부와 스리랑카 동북부 등지에 사는 드라비다족의 한 분파이다.

인도 공동체의 다양한 요리와 다채로운 물건을 감상하려면 무스타파센터와 테카센터 등 세랑군 로드에 있는 리틀 인디아를 방문해볼 만하다. 많은 인도계 싱가포르인이 쇼핑을 하는 이곳에서는 특히 사리³⁾와 도티⁴⁾, 빈랑나무 열매, 목직한 황동 스탠드, 결혼식용 화환, 벵글 팔찌 등을 팔고 인도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필수품도 구입할 수 있다.

【외국인과 이민자 공동체】

싱가포르에서 이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민은 싱가포르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다. 상업, 의료,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싱가포르인이 아닌 사람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40만 명의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이들 중 약 80만 명은 가사 노동자였다.

2013년 ‘인구백서’에서는 2030년이 되면 싱가포르 인구가 약 650만 명에 이르고 이 중 420만 명이 거주자이며 230만 명이 비거주자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하며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가사 서비스 부문의 노동자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에서 태어나거나 부모가 싱가포르인인 경우 싱가포르 시민이 될 수 있다. 또 최소 2년 동안 영주권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이나 싱가포르 시민과 결혼 후 2년 이상 생활한 사람이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된다. 2017년 싱가포르의 영주권자는 52만 명이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고용제도

인구 560만명인 싱가포르에는 26만8500명의 이주 가사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12개 국가 출신자만 가사노동자로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대략 싱가포르 가정의 1/5 정도가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우리나라처럼 전 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 이주 가사노동자는 고용주와의 협상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 현지 보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달에 6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여기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추가된다. 월 30만원 정도 되는 고용 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하고, 휴일근무수당과 교통비 식료품 구입비 등 생활비도 보조해야 한다. 이주 가사노동자의 의료보험도 들어줘야 하고, 건강검진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3) 인도인 여성이 입는 전통 의상이다.

4) 인도인 남성이 입는 전통 하의이다.

싱가포르도 1960년대 산업화를 겪으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히 늘었다. 이에 따라 가사지원 인력 수요가 폭발했고 1978년 외국인가정부 제도를 시행하였다. 여성 경제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이주 가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싱가포르의 시민과 영주권자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14.7%에서 2015년 63.2%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63.9%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53.3%를 기록했다.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주 가사노동자의 급여, 처우,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 고용주에 의한 학대 사건도 빈번히 발생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 가사노동자가 사회적 최약자라는 점을 고려해 학대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한다. 고용주가 이들에 대해 학대를 저질렀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주 가사노동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고용계약이 해지되고 당사자는 출국을 해야 하는 법 규정도 있다. 고용주는 잠재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 이주 가사노동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2. 싱가포르의 역사

싱가포르는 최근에서야 민족국가를 형성했지만 수많은 항로의 교차점에 자리한 전략적 위치로 인해 긴 역사를 가진다.

가. 초기 역사

싱가포르의 초기 역사 기록은 시간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3세기경 중국 문헌을 보면 싱가포르를 ‘반도 끝에 있는 섬’을 의미하는 말레이어 ‘풀라우 우종(Pulau Ujong)’을 바탕으로 한 ‘푸루오충(Pu-luo-chung)’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훗날, 최초의 정착지가 세워진 서기 1298~1299년에 이 도시는 ‘어촌’이라는 뜻의 테마섹(Temasek)으로 불렸습니다.



오래전, 싱가포르는 어촌으로 알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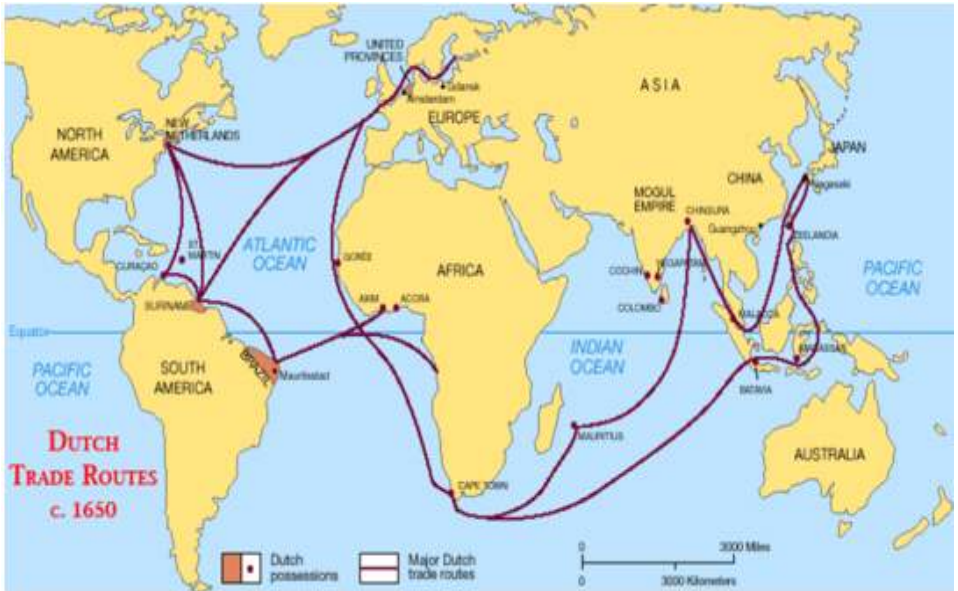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가상동물 머라이언은 물고기 몸에 사자 머리를 하고 있으며 어촌에서 유래한 싱가포르의 기원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자를 목격했던 전설을 기념하고 있다.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한 이 작은 섬은 14세기에 새로운 명칭을 얻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스리비자야(Srivijaya) 왕국의 수도 팔렘방(Palembang)의 상 닐라 우타마(Sang Nila Utama)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지금껏 한번도 보지 못한 동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를 좋은 징조로 생각한 왕자는 그 동물을 발견한 자리에 도시를 세우고 ‘사자의 도시’라며 ‘싱가푸라(Singapura)’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심하(simha)’는 ‘사자’를, ‘푸라(pura)’는 ‘도시’를 뜻합니다.

계절풍을 타고 아라비아, 인도, 말레이반도에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상품을 가져오는 상인들에게 싱가포르의 인기 있는 항구였고 인도와 삼의 여러 왕국이 싱가포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왕국들의 내전에서 영향력이 없었던 싱가포르는 1613년 포르투갈 침략자에 의해 불에 탔고, 이후 상인들은 더 요새화되고 안전한 므라카 항구로 이동하면서 쇠퇴하게 되었다. 명목상 말레이반도 남쪽 조호르 술탄국의 지배 아래 바다 사람으로 알려진 소수의 사람만이 남아 낚시와 해적 행위로 생활을 이어갔다.

나. 식민 사업

18세기, 영국과 네덜란드는 동서 무역에서 상업적 경쟁을 벌였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군사적 적대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확장하려 했다. 강력한 동인도회사가 이 지역에서 영국을 대표했고 상업적 영향력은 군사력으로 뒷받침되고 있었다. 그리고 동인도회사는 세력 기반인 벵골과 광둥 사이에 중간거점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광둥은 영국의 새로운 부의 원천인 차(茶)의 생산지이자 독점권을 가진 인도산 아편의 도착지였다.



식민주의 시대 싱가포르의 위치

또 동인도회사의 토마스 스탬포드 래플스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 교역소를 세우고 싶어 했다. 이후 그는 싱가포르섬에 교역소를 설립하고 자유항으로 선포할 권리를 영국에 주는 조약을 조호르 술탄국의 후세인 왕과 협상했고, 1819년 2월 6일 영국의 국기가 공식적으로 게양되었다. 선박을 수리하고 음식과 물을 보충할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치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이곳으로 금세 모여들었고 성공은 보장된 것이었다.

【토마스 스탬포드 래플스】

토마스 스탬포드 래플스는 대서양 한가운데의 노예선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선장이었다.) 14살 무렵 그의 아버지가 수업료를 낼 수 없게 되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지만,

다행히 1805년 동인도회사에서 사무직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는 영국 정부의 차관보직을 맡기 위해 말레이반도의 페낭으로 향했다. 래플스는 야망이 있었고 항해를 하는 틈틈이 말레이반도에 대해 알아갔다. 곧 현지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으며 1811년에는 자바섬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한동안은 영국에서 다시 생활하며 이후 수 마트라섬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1818년에는 므라카 남단의 교역소 설치를 위해 원정대를 파견하는 일에 동의를 얻고자 인도의 총독인 로드 해스팅스를 설득했다.

래플스의 이름은 싱가포르와 관련해 계속해서 언급되지만, 그가 싱가포르에서 보낸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짧다. 하지만 자신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나면 항상 도시 계획과 개발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1822년 래플스는 잭슨 플랜(Jackson Plan)으로도 알려진 래플즈 타운 플랜(Raffles Town Plan)을 시행하여 식민지에서 급증하는 무질서를 바로잡았다. 민족 거주 지역은 4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유럽 마을에는 유럽인 상인, 유라시안, 부유한 아시아인이 거주하였으며 화교는 현재 차이나타운과 싱가포르 리버의 동남쪽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인도인들은 차이나타운의 출리아 캄퐁(Chulia Kampong) 북쪽 지역과 캄퐁 글램(Kampong Gelam)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이 지역은 싱가포르로 이주한 무슬림, 말레이족 및 아랍인들로 구성되었다. 거리를 격자 형태로 배열하고 집에는 열대성 기후의 효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베란다와 통로에 덮개를 설치하는 지정된 양식을 따르도록 했다. 그는 현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였고 약자를 배려하는 지혜로운 원칙을 세웠으며 토착 말레이인의 교육을 장려했다. 1824년,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2년 후 뇌종양으로 사망했지만, 싱가포르에서 많은 사람이 그를 기념한다. 커다란 거리, 학교, 대학, 쇼핑센터, 골프 클럽, 등대에 그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점령기에도 무사히 보존된 그의 동상은 엠프레스 플레이스에 전시되어 있고 도심 속 보트 키 거리의 래플스 상륙지에도 또 다른 동상이 있다.



하얀 폴리마블로 만들어져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은 표정으로 싱가포르 리버(Singapore River)를 바라보고 있는 래플즈 동상은 관광객과 현지 주민 모두의 사진 속에 자주 나타난다. 1819년에 처음 발을 디딘 것으로 알려진, 래플즈 상륙지에 세워진 동상이다. 조금만 걸어가면 앰프레스 플레이스의 빅토리아 기념관 (Victoria Memorial Hall) 앞에서 유명한 영국인 조각가이자 시인인 토마스 울너 (Thomas Woolner)가 1887년 6월 27일에 제작한 원본 동상을 만날 수 있다.

다. 개발

영국의 정치적 지배는 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19세기 싱가포르르는 계속해서 번성했다. 1826년, 싱가포르르는 페낭, 므라카와 통합되어 벵골 총독이 통치하는 동남아시아의 해협 식민지를 형성했고 1832년에는 이 해협 식민지의 수도가 되었다. 1851년부터 1858년까지는 인도 총독이 이 지역을 관할했고 이후에는 인도 사무소를 통해 영국이 직접 통치했다. 그리고 1867년에 대영제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다.

싱가포르르는 말레이반도의 고무산업과 1869년에 개통된 수에즈운하에 힘입어 나날이 경제적으로 막강해졌다. 서양 세력의 투자와 은행업, 비즈니스 관행의 발전도 더욱 가속화되었고 19세기 말에는 이 지역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말레이인은 분노하며 이따금 영국에 저항했지만, 싱가포르는 영국의 지배에 반기를 들지 않았고 고무와 주석을 수출하는 주요 무역항으로 날로 번성했다. 영국 정부는 영어를 쓰는 초등학교를 세웠고 다수의 중국인은 중국어학교를 세웠다.

싱가포르의 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1918년에 고무와 주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싱가포르인은 큰 부를 거머쥐었다. 또 영국이 식민제국을 보호하면서 싱가포르의 군사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고, 1922년에는 동아시아에서 영국의 주요 군사기지가 되었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 중국인 사이에는 반일감정이 고조되었는데, 영국 관리는 반일시위나 선동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했다.

라. 일본 점령기

1941년 12월 일본이 말레이반도를 침략했고, 1942년 2월 영국은 싱가포르를 일본에 넘겨주었다. 싱가포르를 ‘쇼난’이라고 부르던 일본은 점령기간 동안 잔인하고 야만적이었다. 여성과 아이를 포함해 수천 명의 외국인이 체포되어 전쟁 동안 캠프에 수용되었다. 기아, 질병, 잔혹한 처벌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연합군 포로는 고문을 당하고 악명 높은 창이 감옥에 수감되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인근에는 전쟁 중 사망한 연합군을 추모하는 4,400개의 하얀 묘비와 크란지 전쟁 기념비가 있다.

싱가포르가 일본에 항복한 후 3년이 지난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투항했다. 싱가포르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한 시기가 끝났다. 일본인은 중국인을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칭하며 18세에서 50세 사이 5만여 명의 남성들을 체포해 즉결 처형했다. 이런 숙청이 자행된 장소로 창이 해변, 풍굴 포인트, 센토사섬이 가장 대표적이다. 에스플러네이드 공원에서는 유명한 중국인 사업가이자 저항운동가였던 림보생의 기념비를 볼 수 있다. 림보생은 일본 비밀경찰인 헌병에게 체포되어 몇 달 동안 고문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그의 조직원을 배신하지 않았다.

나이가 많은 싱가포르인은 일본의 이런 만행을 잊지 못하며 특히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한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점령기간 동안 일본의 만행을 일본 역사 교과서에 분명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마. 독립

전쟁이 끝나고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 말레이시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영국은 통일된 말레이반도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반대했으며 1946년 싱가포르를 영국 정부의 직할 식민지로 만들었다. 1950년대 초 싱가포르 정부는 영국이 임명한 총독과 대부분 부유한 중국인 사업가로 이루어진 입법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통용되는 4개 주요 언어로 초등교육을 시행했지만 전쟁 동안 영국이 싱가포르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민족주의와 반식민주의가 널리 확산되었다. 나아가 자치에 대한 열망이 커지던

서 학생과 노동자의 불만이 높아졌다.

통치권을 넘겨주기 꺼리던 영국은 1959년 마침내 35세의 나이로 총리에 당선된 인민행동당PAP 리관유에게 완전한 자치 정부를 넘겨주었다. 리관유는 새로운 국기와 국가를 도입하고 영어, 표준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공용어로 지정했다. 말레이반도와 연방을 구성하기 위해 말레이시아협정을 체결했고, 4년 후 말레이시아가 독립하면서 새로 창설된 말레이시아 연방에 가입했다.

10년 동안 중국인들은 많은 활약을 펼치며 관리직을 차지했고 말레이반도뿐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번창했다. 이런 중국인들의 약진에 말레이인이 적대감을 느끼면서 시작부터 연방 내부에는 정치적, 인종적 갈등이 싹텄다. 말레이반도의 국가들은 싱가포르의 많은 중국인이 힘과 영향력으로 새로운 연방을 독식할 것을 우려했다. 그리고 많은 갈등과 논쟁이 벌어진 후 싱가포르는 연방에서 축출되었고 1965년 8월 9일 독립 공화국이 되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래에 직면해 싱가포르는 먼저 유엔에 가입했고, 이후 영연방에도 가입하며 1971년 군대를 철수하는 영국에 작별을 고했다.

【리관유】

리관유는 광둥 지방 출신의 이민자 3세대로, 1923년 싱가포르에서 태어났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했고 1954년 인민행동당을 조직했다. 싱가포르가 오늘날 아시아의 신흥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리관유의 통찰력과 에너지, 추진력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독립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싱가포르의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고 제조업이 번성했다. 항만시설(다른 아시아 지역들의 물류센터로서의 전략적 위치에 자리한 수심이 깊은 항만임)은 곧 런던과 뉴욕에 필적할 만큼 발전했다.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싱가포르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축적한 부를 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에게 분배했다. 리관유는 현재까지도 싱가포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법치주의가 부정부패를 억제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또 인종적 배경과 상관없이 평등한 기회 보장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번영하는 다민족 사회에 대한 리관유의 비전은 큰 성과를 나타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문해율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국민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의료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교통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대다수가 주택개발청에서 제공하는 밝은색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리관유는 1990년 공식적으로 은퇴하면서 싱가포르 내각의 수석 각료직을 맡았지만 2015

년 사망할 때까지 인민행동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리센룽이 뒤를 이어 싱가포르 총리가 되었다.

3. 싱가포르의 법률과 사회

【법과 질서】

지금의 안정적인 싱가포르 사회는 결코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판적인 사람은 싱가포르가 지나치게 통제된 사회라고 주장한다. 한때 관광객에게 ‘멋진 도시’로 호감을 샀지만 대다수 관광객은 의사의 처방 없이 껌을 씹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깜짝 놀란다.

“이 나라에서는 껌을 씹으면 벌금이 1억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80년대에 지하철 바닥의 수많은 껌을 보고 정부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껌을 수입하지 않으면 청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비용으로 지하철 요금을 줄이면 어떨까?’를 국민에게 의견을 물었고, 벌금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역시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음에도 껌과 쓰레기, 그리고 담배꽂이가 보이지 않는 깨끗한 나라이다.

공중화장실 사용 후 물을 내리지 않으면 벌금이고 무단횡단을 해도 벌금인 각종 ‘금지 표지판’에 쓰여 있는 벌금 내역은 강력한 법과 체제로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횡단보도 주변의 50m 이내에서 무단횡단과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거나 커튼을 내리지 않은 채 집에서 나체로 걸어 다녀도 안 된다. 대부분의 식당은 금연이며 공중화장실을 사용한 후 물을 내리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된다. 공공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3대에서 8대에 이르는 태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실 여성이나 50대 이상의 남성은 태형을 받지 않지만, 태형은 여전히 처벌이나 억제책으로 폭넓게 이용된다. 최근에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두 경우 모두 아직까지 합법이다.

1990년대에는 사법부가 여러 정치 사건과 시민권 소송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헌법상의 독립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관리가 정치적 반대파를 협박하고 언론을 검열했지만, 판결을 뒤집거나 판사를 쫓아내고 위협하려 하지는 않았다. 현재 싱가포르는 엄격히 규제된 사회이지만 개방과 통제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사법제도를 갖춘 국가로 알려져 있다.

【정치】

인민행동당은 대중적 인기와 네거티브 선거를 금지하는 엄격한 조치 덕분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투표는 의무이며 2015년 총선에서 89석 가운데 83석을 차지했다. 그에 반해 노동당은 단지 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리관유와 그의 뒤를 이은 후계자는 권위적인 통치방식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실질적으로 억압했다. 언론에서는 정치토론을 거의 하지 않으며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무런 반대 없이 권력을 다시 거머쥔다. 노동당은 인민행동당이 명예훼손법을 이용해 2015년 선거에 후보자가 출마하는 것을 막고 노동당에 투표한 지역 주민을 공공주택 입주명단에서 가장 아래 배치한 것을 비난했다. 2017년 국경 없는 기자회견RWB는 언론자유 부문에서 싱가포르 순위를 151위로 매겼다.

외국인에게는 이런 일이 억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50년 넘게 이어온 인민행동당의 집권을 통해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 있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법질서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택소유율과 국가저축률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점차 향상되었다.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다민족 사회의 모습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의 비판에 민감하므로 이런 문제를 싱가포르인과 토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게다가 리관유와 그의 후계자는 서양 사회는 자신들의 가치를 포기했다고 여기며 서양의 약물남용, 범죄, 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가정생활의 붕괴, 노숙자문제를 지적한다. 평범한 사람은 대체로 생업이라는 중요한 일에 매진하겠지만, 정치적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싱가포르인이 있다면 아마도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다.

【주택개발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민족 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은 고층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저소득층 시민을 이주시켰다. 아파트 단지에는 학교, 상점,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중앙연금기금에 납부한 의무부담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구입했다. 또 공공주택과 기타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사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토지취득법이 1967년 제정되면서 정부사업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개발청은 이 법을 통해 불법 거주자를 몰아내고 빈민가를 깨끗이 청산한 후 이들이 있었던 자리에 쾌적한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캄퐁(작은 마을)이 파괴되면서 나이가 많은 싱가포르인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에 새롭게 적응해야 했고 키우던 돼지와 닭뿐 아니라 한때 이들이 속했던 공동체를 잃게 된 것을 애석해했다. 마찬가지로 주택개발청 제공한 공공주택에서 다른 민족과 강제로 섞여 살면서 캄퐁생활의 특성인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3세계의 불결한 주거환경이 부유한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주택개발청이 설립되던 1960년에는 인구의 약 9% 만이 주택개발청이 분양한 아파트에 거주한 반면, 현재는 약 79%의 싱가포르인이 공공주택에 거주한다. 정부는 주택개발 펀딩과 기타 다른 활동을 통해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위대한 모더니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꿈꿔온 밀집된 미래도시를 구현한 몇 안 되는 성공적인 사례이다.

【중앙연금기금】

1955년에 설립된 싱가포르의 의무 사회보장제도인 중앙연금기금(CPF⁵⁾)는 사회 변화에 중요한 원동력이다. 처음에는 노동자가 사전에 정해진 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과세 계좌에 예치했고 고용주도 같은 비율을 적립했다.

CPF는 현재 55세 이하 기준 보험료율이 37%에 달한다.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9%)의 4배를 넘는 수준이지만 정작 납부자의 반발은 크지 않다. 탄 씨 사례처럼 자신이 낸 CPF 적립금을 목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부동산 매매나 의료비 지출 등에서도 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신뢰를 얻었다. 싱가포르의 자가 보유율이 90%에 달하는 이유는 연금을 활용한 주택 구매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정부가 토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노후 대비의 중요한 한 축으로 보고 연금 활용의 길을 터준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부분 적립식인 한국과 달리 싱가포르 연금체계는 완전 적립식으로 국민은 개개인의 적립액에 이자를 더한 액수를 연금으로 받는다.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의 연금액을 일부 보조하는 한국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 본인의 저축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1984년에는 기여율이 50%까지 오르기도 했다.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거 낮춰졌다가 최근에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대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재차 높아지는 추세다. CP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5세 이하 국민의 연금 기여율은 37%다. 근로자가 월급의 20%를 내면 고용주가 17%를 보조해주는 구조다. 직장인 기준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으면 60만원을 연금으로 납부한다는 얘기다. 기여율은 56~60세(29.5%), 61~65세

5)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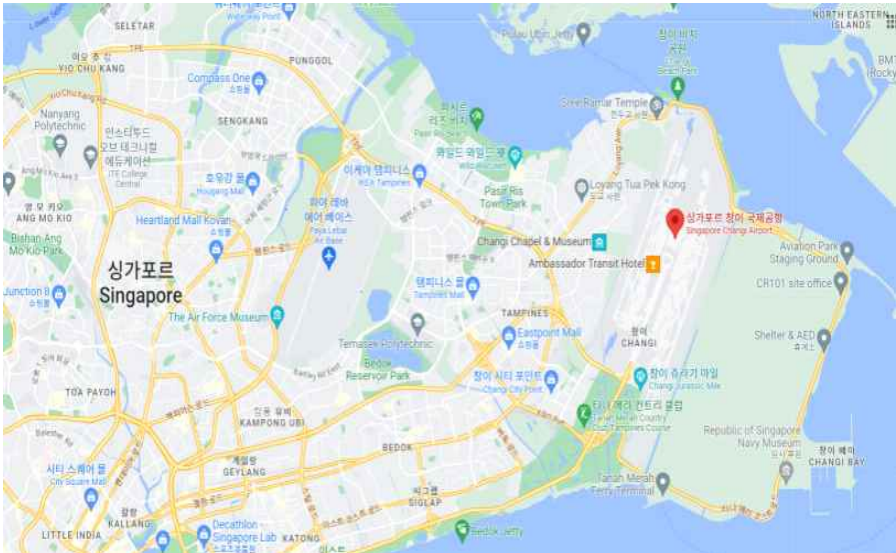
(20.5%), 66~70세(15.5%), 71세 이상(12.5%)으로 연령대에 따라 달라진다.

기여율이 높고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본인의 연금을 책임지는 구조다 보니 CPF 적립금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CPF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기준 적립금은 5402억싱가포르달러(약 505조원)로 2006년(118조원) 대비 330% 늘었다.

싱가포르 연금 체계가 한국과 또 다른 점은 세부 계좌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CPF는 부동산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일반계좌(OA)와 노후용 특별계좌(SA), 의료용 의료계좌(MA) 등으로 구분돼 있다. 매월 적립액은 분산돼 쌓이며 법률에 의거해 지급되는 이자 수익이 나온다. 2023년 현재 OA의 연간 이자율은 2.5%이고, SA는 4%에 달한다. 이민 13년 차인 헬스케어 스타트업 전문가 김영미 박사는 "맞벌이 등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OA 적립금을 SA로 옮겨 자산을 더 불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55세가 되면 현금처럼 빠져 쓸 수 있고 65세가 되면 적립금이 'CPF LIFE'로 전환돼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yjunmo&logNo=221246597401>

4. 유명 관광지



【창이국제공항】

창이국제공항은 세계에서 훌륭한 공항으로 평가받는다.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이 영국의 항공서비스 전문 컨설팅기업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선정한 올해의 훌륭한 100대 공항 중 1위에 선정됐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재팬이 7일 보도했다. 인천국제공항은 4위에 랭크됐다. 루프톱 수영장, 난으로 가득한 정원, 영화관, 설치미술, 고급 식당, 명품숍 등이 들어서 있는 창이국제공항은 해외 관광객이 싱가포르에 도착해 겪는 시차를 감수할 수 있게 한다. 창이국제공항은 관광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을 잘 보여주며, 그 결과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휴가지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명성과 함께 전통문화, 최첨단 건축, 쇼핑, 음식을 선보이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관광산업은 싱가포르 국내총생산 GDP의 큰 비율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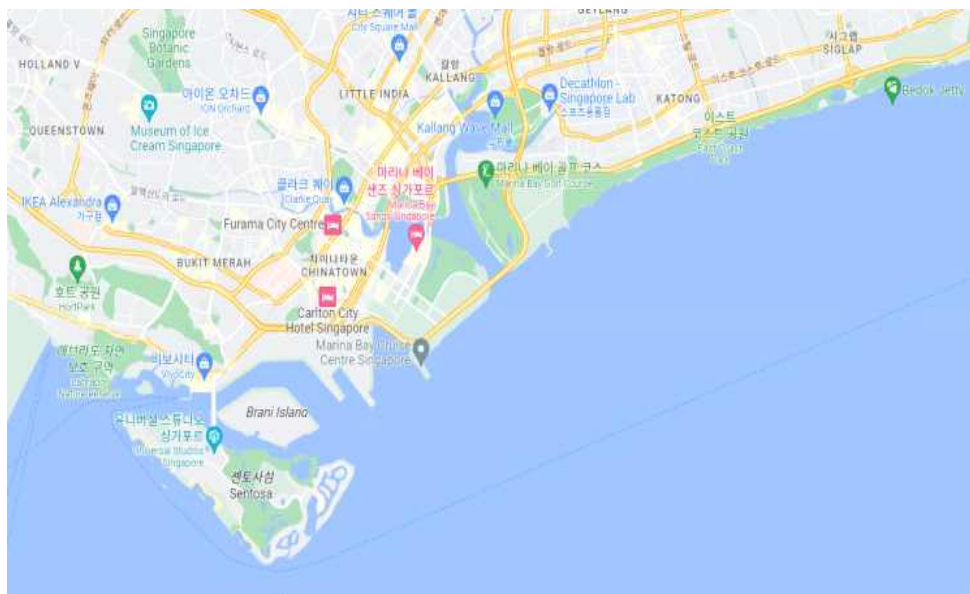


실내 정원과 인공 폭포



창이 공항내 에어로텔의 수영장

【차이나 타운】



래플스는 1819년 싱가포르에 도착한 중국인 이민자에게 싱가포르강의 남쪽 지역을 할당했다. 곧 중국 중부와 남부 해안 지방에서 온 수천 명의 중국인이 이들과 합류했고 차이나 타운은 활기 넘치는 장소로 변화했다. 차이나 타운은 싱가포르 정부가 기존의 낡은 건물을 현대적인 주택개발청 아파트로 대체하기 시작할 무렵인 1970년대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그리고 뒤늦게 개발위험이 알려지면서 재건과 복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현재 차이나 타운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뒤섞여 있으며, 이곳에서는 전통 약재를 판매하는 오래된 상가주택이 유행하는 현대식 바와 라이프스타일숍 옆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1900년대 초 싱가포르인들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고 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언을 들을 수 있다. 파고다 거리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온갖 종류의 장신구와 칠기를 볼 수 있다. 1827년에 힌두교 이민자가 세운 스리 마리아만 사원과 불교의 오래된 사찰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차이나 타운을 둘러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걸어서 구경하는 것이며 볼거리가 아주 많으므로 적어도 서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둘러보는 편이 좋다. 습하고 더운 싱가포르 날씨에 익숙하지 않다면 쉽게 피로해질 수도 있다.



차이나타운 불아사



차이나타운 스리마리암만 사원

【캄푹 글램 혹은 아랍 거리】

래플스가 싱가포르강 북쪽과 로코르강 서쪽 지역을 이슬람교 이민자의 정착지로 지정하자 곧 아랍인 상인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현재 이곳에는 정착하기 위해 찾아온 아랍인 선원과 인도네시아인, 말레이인의 전통이 잘 나타나 있다. 다채로운 색으로 꾸며진 상점에서는 실크, 바틱⁶⁾ 양탄자, 낫그릇, 금, 장신구를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천을 판매한다. 많은 할랄식당, 특히 술탄 모스크 주변의 식당에서 풍겨오는 향이 주변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 한때 뒷골목이었던 하지 레인은 이제 독특한 부티크와 카페로 북적거리고 이스타나 왕궁에는 말레이 헤리티지센터가 들어서 있다.



6) 무늬가 그려진 부분을 밀랍으로 막아 물이 들지 않게 염색한 무늬나 천이다.



캄퐁 글램 술탄 모스크



아랍인 거리 비단 가게

싱가포르의 첫 번째 모스크는 동인도회사에서 받은 많은 보조금으로 1826년에 세워졌고 오랜 시간이 지나 술탄 모스크로 바뀌었다. 현재는 황금 돔과 첨탑이 있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모스크이며 5,000명의 예배자를 수용할 수 있다. 외부인의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라마단 동안에는 비교적 구경하기가 쉽다. 또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지면 신도들이 단식을 마치고 거리로 나와 수많은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캄퐁 글램은 아랍 거리뿐 아니라 로저 운하 로드, 잘란 술탄, 빅토리아 거리, 비치 로드의 경계 지역까지 모두 포함한다. 캄퐁 글램에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싱가포르 지하철인 MRT나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다.

【리틀 인디아】



차이나 타운이나 캄pong 글램과 달리 리틀 인디아는 민족적 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19세기 후반 자발적으로 성장했다. 리틀 인디아는 로쳐 운하 북쪽에 크게 밀집해 있고 MRT를 타고 리틀 인디아 역에서 내리면 찾아갈 수 있다. 중심지인 세랑군 로드는 로쳐 운하 로드에서 라벤더 거리까지 약 1.6km의 구간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걸으면서 여기 저기를 둘러볼 수 있다. 이곳은 힌두교 사원, 중국 사원, 모스크, 교회가 어우러진 싱가포르에서 가장 활기찬 구역 중 하나이다. 볼거리가 매우 풍성하며 여러 맛있는 음식과 멋진 물건들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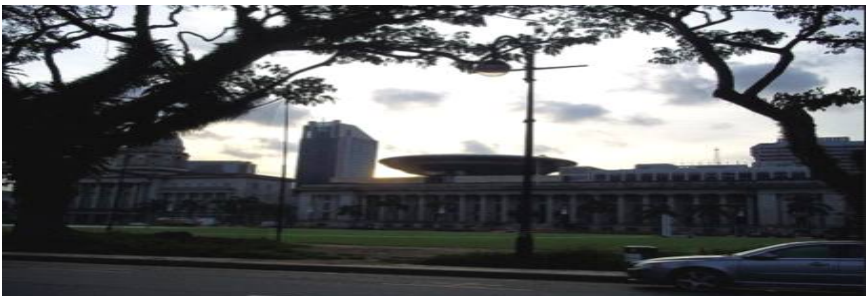
무스타파 센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디자이너 제품을 파는 24시간 쇼핑몰이다.



스리 비라마칼리아만 사원 리틀 인디아 가장 아름답고 북적이는 사원. 세랑군 로드 위치 힌두 사원, 결혼식장과 다목적 홀 시설을 갖추었다.

식민지 시대에 생긴 상점이 모여 있는 리틀 인디아 아케이드에는 화환을 판매하는 행상, 부티크 가판대, 정교한 패턴의 사리 천, 고대 인도 문양을 새긴 보석을 판매하는 금세공인 등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떠들썩한 야외의 테카 센터에서 따뜻한 밀크티를 만드는 사람과 생선과 향신료를 판매하는 가판대를 보면 놀라움을 경험할 것이다. 24시간 문을 여는 유명한 쇼핑몰인 무스타파 센터는 두 건물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곳은 식료품에서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높이 쌓인 물건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 지나가야 한다. 리틀 인디아의 모든 곳을 둘러보는 데는 대략 반나절이 걸릴 수 있으며 사람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일요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일요일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곳으로 나와 담소를 나누거나 식사를 하고 쇼핑도 한다. 디파발리 기간에는 수많은 인파가 다채롭고 멋진 장관의 일부를 이루기도 한다.

【역사적인 싱가포르와 도심】



시티홀, 싱가포르 최고재판소 바로 앞에 넓게 펼쳐진 파당



푸른색 돔이 돋보이는 구대법원, 코린트식 열주가 늘어선 시청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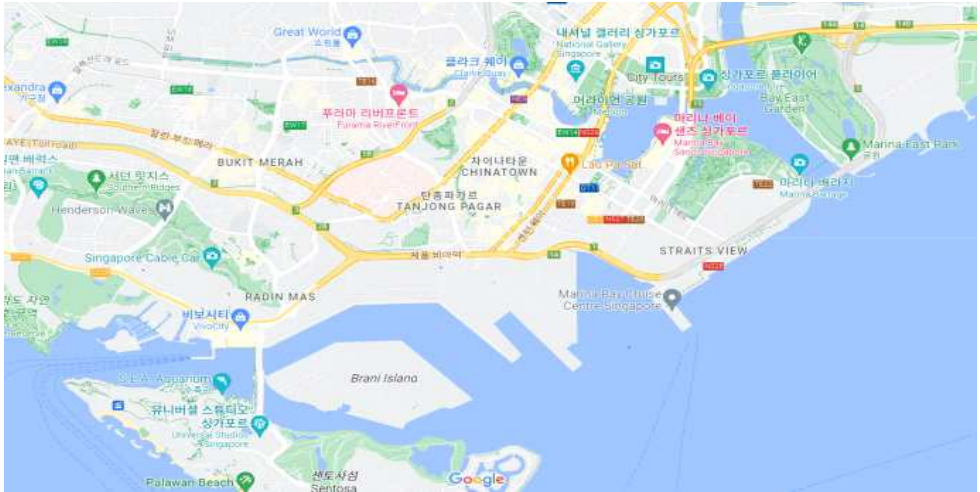
과거 식민지의 중심에는 나무로 둘러싸인 넓고 잘 관리된 잔디밭인 파당이 있다. 파당은 래플스가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 휴양지로 지정한 곳이다. 이곳은 국회의사당, 시청, 대법원과 함께 과거 싱가포르의 도심을 형성했고 현재는 복원된 식민지시대의 웅장한 건축물이 있다.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아시아 문명 박물관도 방문해볼 만하다. 근처 베이에 곡선 모양의 돔이 과일 두리안을 닮아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두리안’으로 알려진 에스플러네이드 공원과 극장이 있다. 또 67m에 달하는 젓가락이 지상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4개의 기둥은 4명의 싱가포르인을 상징하며 일본 점령기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이다.

싱가포르의 여러 훌륭한 건축물은 아일랜드 건축가인 조지 콜만이 설계했으며, 그의 묘비는 초기의 다른 정착민의 묘비와 함께 포트 캐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기에 얼마나 많은 영국인이 이곳에서 20대의 나이에 열대성 질환으로 사망했는지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미국의 I. M. Pei가 설계한 래플즈시티 복합건물의 스위스 스탬포드 호텔 (73층)은 1986년 세계 최고층 호텔로 기네스북에 기록됐다. 시공 당시에는 소나기가 자주 오는 싱가포르의 기후를 감안, 5년 동안의 기상 자료를 분석해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날을 찾아내 48시간 연속 콘크리트 타설이라는 세계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985년 8월 싱가포르 리관유 수상은 싱가포르 독립 20주년 기념연설에서 래플즈시티 복합건물에서 보여준 쌍용건설인의 강인함과 근면성을 본받으라고 역설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마리나 베이】



1969년에 시작해 2008년에 완공된 이 상징적이고 눈부신 간척지인 마리나 베이는 과거의 도심을 둘러싸고 있다. 유명한 건축가인 모셰 사프디가 설계한 샌즈 스카이라이프 전망대에서 싱가포르의 화려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연꽃 모양의 아트 사이언스 박물관에서는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위해 국제적인 전시를 개최하며, 근처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트리가 있는 초현대적이고 거대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가 있다.



마리나베이 샌즈 전망대



마리나 베이 샌즈 스카이파크

【싱가포르의 부두】

싱가포르강을 따라 과거 싱가포르의 상업 중심지였던 3개의 주요 부두인 보트 키, 클락 키, 로버슨 키가 있다. 하지만 1960년대 싱가포르 밖의 항구로 배가 이동하면서 이 지역은 쇠퇴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1980년대 강 정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보트 키에 있는 전통적인 상가주택인 솽하우스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관광객을 태운 보트가 강의 위아래를 이동하는 이 지역은 이제 바와 카페로 유명하다. 나이트 클럽과 식당으로 멋지게 개조한 정크선이 강 위에 있는 클락 키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화려한 중심가인 반면,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로버슨 키에서는 안락하고 평온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래플스 호텔】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래플스 호텔을 가보지 않고서는 싱가포르를 제대로 여행했다고 할 수 없다. 1887년에 문을 연 래플스 호텔은 식민지시대의 스타일과 우아함, 화려함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며 이국적인 싱가포르 슬링 칵테일을 처음 선보였다. 에바 가드너와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영화배우와 조지프 콘래드, 러디어드 키플링, 서머셋 모옴 등의 작가가 이 호텔에 머물렀다.



영국령 싱가포르시기인 1877년에 개장한 싱가포르의 국보급 호텔. 콜로니얼 양식의 건축이며 1989년에 쌍용건설이 내부 복원을 맡은 호텔로도 건축계에서 유명하다.



래플스 호텔. 갤러리. 이름은 싱가포르의 근대사를 시작한 사람인 토머스 스탬포드 래플스에서 따왔다.

【카통 혹은 주 치앗 로드】



페라나칸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버스나 택시를 타고 카통 지역을 방문해볼 만하다. 전경 전의 건축물과 다채로운 슍하우스가 특색을 이루는 이 지역은 싱가포르 맛집 탐방가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이다. 페라나칸 문화와 요리를 경험해볼 수 있으며 페라나칸 수공예품도 구입할 수 있다. 이스트 코스트 비치 역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카통 앤틱 하우스는 과거 말레이인과 초기 중국인 이민자의 후손인 페라나칸의 가정집이었다. 앤틱 하우스의 주인인 ‘피터 위’씨의 페라나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박물관으로 꾸며진 곳이다.



엔테크 하우스에서는 전통 의상인 케바야 부터 신발, 도자기, 가구 등 초기 페라나칸 문화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티옹 바루】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트렌디한 장소 중 하나인 티옹 바루는 예스러운 멋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주택 단지이다. 과거 공동묘지였던 티옹 바루는 이제 1930년대 풍의 건축물과 유명한 카페로 잘 알려져 있다. 독립서점, 빈티지 레코드점, 생활용품 부티크도 만나볼 수 있다.



티옹바루 베이커리



티옹바루 박스 액츄얼리

【데미 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점과 식당이 모여 있는 이 매혹적인 장소는 1850년대에는 옥두구(아시아의 열대 지방에 분포하는 열매로, 향미료와 향료로 사용된다.-울금이) 농장이었고 후에는 군영이 설치되었다. 2007년 재개발된 데미 힐은 이제 보타닉 가든 인근의 라이프 스타일 관광지가 되었다. 산책로를 한가로이 거닐다 보면 과거 영국군의 막사였고 이제는 부유한 유럽인 사이에서 인기 있는 유명 주택들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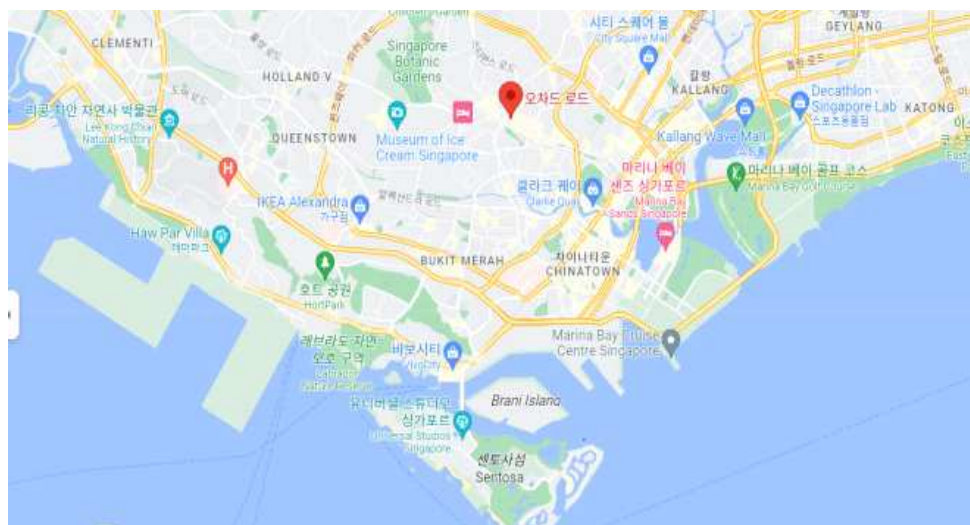


트렌디한 싱가포르 여행을 원한다면 데미힐을 찾으라고 한다.



템시힐 PS. 카페, MoCA

【오차드 로드】



오차드 로드는 1830년대 초에 소박하게 시작했다. 당시 오차드 로드는 과수원, 육두구 농장, 후추 농장으로 가는 이름 없는 길에 불과했습니다. 1958년, 지역 상인 C. K. 탕(C. K. Tang)이 오차드 로드에서 첫 백화점 탕스(TANGS)를 열었다. 당시 하우스 오브 탕스(House of Tangs)로 알려지며 싱가포르에서 가장 사랑받는 쇼핑가가 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탕스 백화점

오차드 로드의 변화한 대로는 이제 각종 매장과 다이닝의 천국으로 수천 개 사업장이 관
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최고의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한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 중 하나인 탕스의 디자인은 탑 형식의 옥색 지붕과 상징적인 붉은 기둥처럼 독특
한 동양 건축 특성을 보이며 자금성에 대한 오마주를 담고 있다. 색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오차드 로드를 따라 거닐다가 싱가포르에서 가장 눈부신 쇼핑 단지 중 하나인
ION 오차드(ION Orchard)로 가면된다. 미래에서 온 듯한 유명 쇼핑몰로, 명품 브랜드부
터 고급 대중 패션, 엔터테인먼트 매장에 이르기까지 8층이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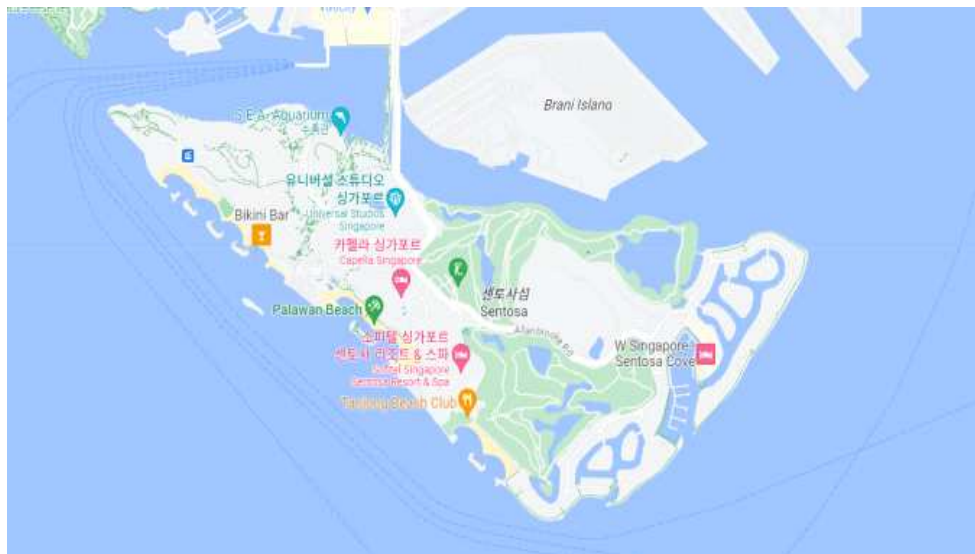
ION 오차드



파 이스트 플라자

ION 아트 갤러리(ION Art Gallery)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 ION 아트 갤러리는 다양한 국제 전시회와 현지 전시회를 통해 내면의 창조성을 일깨워 준다. 대중 패션 애호가와 알뜰 쇼핑객 모두를 위한 안식처인 파 이스트 플라자(Far East Plaza)에서 쇼핑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다. 이 쇼핑몰에는 최신 유행의 길거리 의류 상점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미용 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자제품점이 있다.

【센토사섬】



싱가포르 남쪽에 위치한 이 작은 섬은 과거 영국의 군사기지였다. 현재는 싱가포르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우 인기 있는 휴양지로,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는 리조트 월드와 마린 라이프 공원이 주요 명소이다. 밤에는 레이크 오브 드림스의 물, 불, 빛으로 펼쳐지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골프를 치거나 카지노에서 가볍게 오락을 즐길 수 있으며 휴식을 취하고 싶으면 스파에서 고단한 몸을 달랠 수 있다.

좀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면 센토사섬의 서남쪽을 방문해볼 만하다. 모래사장과 야자나무, 관목으로 꾸며진 반짝이는 해변이 펼쳐져 있다.



센토사 케이블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씨 아쿠아리움



레이크 오브 드림스

【세인트 존스 섬】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싱가포르 남쪽에서 6km 떨어져 있고 센토사섬보다 개발이 덜 된 세인트존스섬을 추천한다. 19세기에는 콜레라 감염에 대한 검역소였고 1819년에는 래플스가 싱가포르의 말레이 족장을 만나기 전에 정박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호텔은 없지만 방갈로를 예약하고 인근의 쿠수섬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 쿠수섬에서는 평화로운 석호에서 수영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피크닉을 하며 다양한 조류를 관찰할 수 있다. 일부 새는 싱가포르 본토의 조류 판매상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곳으로 옮겨졌다.



【플라우 우빈섬】

시간을 거슬러 70년 전의 싱가포르를 만나보려면 싱가포르 동북 지역에서 약 2km 떨어진 플라우 우빈섬을 추천한다. 플라우 우빈섬은 싱가포르에 마지막 남은 진정한 캉풍으로, 100여 명이 채 안 되는 주민이 살고 있다. 전통적인 말레이 수상가옥과 도교나 불교 사원도 있다.

활동적인 사람이라면 산악자전거를 빌려 야생식물이 풍부한 맹그로브 습지와 숲을 탐험해보기를 추천한다.



플라우 우빈 선착장



플라우 우빈 동쪽 끝 책자와 습지

5. 작지만 강한 나라, 세계적 교육 강국 싱가포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2018) 결과, 핀란드가 지고 싱가포르가 뒀다. 한국 역시 PISA에서 높은 성취를 자랑해왔으나, 이번에 싱가포르는 수학, 읽기,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보다 상위를 기록했다.

총 6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싱가포르는 전 영역 2~3위권에 올랐고, 문제해결능력은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대학 경쟁력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교육’이 국가 생존과 직결… 4개 언어 공용어로 채택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인구 약 550만 명의 작은 도시국가이다. 면적은 서울의 1.13배에 불과하고 식수조차 수입해야 할 만큼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다. 1965년 말레이시아연방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세계 언론들은 이 작은 섬나라는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 대부분이 무단정 착촌에 거주하는 상황이었고, 제대로 된 교육도 실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업률도 10~12%에 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좁은 국토와 부족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고정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고, 유일한 수입원인 중계무역항은 19세기 이래 개발이 미진하여 더 이상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나라를 세계일류 국가로 이끈 것은 바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가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자원이 달리 없는 상황에서 국가 생존과 국민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약 74%, 말레이계 약 13%, 인도계 약 9% 등으로 구성된 다인종, 다

언어, 다문화 국가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국민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헌법에 각 인간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이중 언어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체 국민의 영어 습득 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청년층은 100% 가까이 영어를 구사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및 지식기반경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용주의적 교육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과정부터 대학까지 매 과정마다 경쟁을 통해 소수 정예만이 대학과정을 마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교육에 비중을 두는 교육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생후 6개월에서 5세까지의 학령미달 아동을 상대로 하는 유아교육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거의 100%가 거치는 유아교육은 유치원이나 보육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유아교육기관은 대부분이 사립인데, 국가로부터 운영비의 거의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교육내용과 운영을 정부가 감독한다. 교육연한은 1~3년인데 3세까지는 보육(탁아), 4세와 5세는 각각 유치원 1년과 2년생이다. 유치원 과정을 마치면 학령아동(6세)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정부의 초기교육정책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4시간씩 행해지는 유아교육에서도 언어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도 영어가 중심이 되나, 만다린어·말레이어·타밀어 등 출신 종족별 고유 언어 훈련에도 비중을 둔다. 만다린(Mandarin)어는 베이징(Beijing)을 중심으로 쓰이는 표준중국어이며, 말레이어는 말레이 종족들이 광범위하게 쓰는 언어이고, 타밀(Tamil)어는 싱가포르 거주 인도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도 남부에 거주하는 타밀 사람들의 언어이다.

이밖에도 공동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자제력 기르기·청소·정리정돈 등과 음악과 유희 등을 통한 창조적 능력 향상을 꾀하며, 기본적인 수리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는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은 미래의 산업인력 수급 전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먼저 통상산업부가 향후 5년 후의 산업인력 수급 전망을 판단하여 교육부에 보내면, 교육부는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국가 장래의 경제 여건에 적합하도록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력 수준과 일자리가 일치되어 비싼 교육 훈련을 받은 인력이 낭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제 논리에 따른 교육정책

싱가포르의 교육이 유아교육부터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의 평준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영재교육을 강조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능력우선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인재를 발굴하고, 이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의 장래를 위한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되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합당한 결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에서도 실적주의(Meritocracy)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리관유(李光耀)의 장남이자 고척통에 이어 싱가포르공화국의 제3대 총리에 오른 리셴룽(李顯龍)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중주의·획일적 평등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 엘리트 교육을 포기하고, 교육의 평준화를 고집한다면 국가의 열등화와 사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여 결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국가 생존 차원의 정책에 따라 모든 교육과정은 걸러내기(streaming-out)로 알려진 우열반 편성을 위한 시험 성적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 학교로 진학 예정자와 예비 취업자로 구분된다.

초등교육은 4년의 기본과정과 2년의 적응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본과정이 끝나는 4학년 말에 싱가포르의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국가에서 행하는 걸러내기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 향후 엘리트 교육과정으로 나갈 학생과 직업교육과정으로 나갈 학생이 갈라진다. 초등학교의 ‘걸러내기’ 시험 과목은 영어·수학·제2외국어인데, 이중 언어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영어를 출신 종족어처럼, 자신의 종족어를 영어처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엘리트 코스가 보장된다.

첫번째 걸러내기 시험 결과에 따라 3분류의 우열반 학급 편성이 이루어진다. 학급 편성 후 성적이 향상되면 물론 우수학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두 가지 언어 구사에 문제가 없는 상위 성적의 60%가 진급하여 졸업시험(PSLE)에 합격하면 중등학교에 진학한다. 두 언어 구사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중위 성적 20%의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2년 더 다닌 후 졸업 시험을 거쳐 합격자는 중등학교에, 불합격자는 직업훈련원으로 배치되어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위 20%의 중등교육이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들은 첫 번째 걸러내기 시험 후에 종족어 교육에 중점을 둔 8년간의 초등학교 교육을 마친 후 직업훈련원으로 보내져 일찍부터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중등교육 기간은 4년인데, 초등학교 졸업시험 성적에 따라 상위 성적 6%의 특별이중언어과정(SBC)과 중위권 성적 60%의 신속이중언어과정(EBC), 그리고 나머지 하위 성적의 보통이중언어과정(NBC) 등 3단계로 분류하여 학교에 배치하고 성적 향상에 따라 코스 이동이 가능하다. 이 중 SBC나 EBC 코스 진학생들에게는 4년 후 중등학교 졸업자격시험(GCE O level)을 볼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보통이중언어과정의 진학자는 4년 과정을 마친 후 중등학교 수료시험(GCE N level)을 보아 성적 우수자는 중등학교 5학년으로 진급하고, 성적 미달자는 직업훈련원으로 진로를 바꾸거나 취업을 하게 된다. 중등학교 5학년 수료자는 졸업자격시험(GCE O level)을 거쳐 다시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고등교육은 졸업자격시험(GCE O level) 성적 우수자는 2년제 주니어 칼리지(Junior College)에서, 성적 보통자는 3년제 폴리테크닉(Polytechnic)에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

며, 성적 미달자는 직업훈련원으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도록 유도한다. 고등교육 수료자는 졸업자격시험(GCE A level)을 거쳐 성적에 따라 3년 내지 5년 과정(의과대학)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택하게 된다.

생각하는 학교, 배우는 국가

싱가포르의 교육제도는 모두 직업교육과 직결된다. 나아가서 직업교육이 중점을 두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나 직업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work ethics)’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적성에 맞고 내 능력에 부합하며, 사회와 국가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입시킨다. 택시 운전기사나 거리 미화원에서 호텔 종업원까지 대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여 ‘평생직장·평생직업’의 개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계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봉급 인센티브 제도를 즐겨 구사하지만, 중국계 기업들은 직업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우선한다. 그러므로 한국계 기업은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봉급을 지급하고도 노사분규와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21세기 기술혁명시대를 대비하여 과학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아교육 시기부터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고, 초등·중등학교의 과학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1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싱가포르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세계 정상급으로 끌어올렸다.

〈PISA 2018 전체 참여국의 영역별 국제 비교 결과〉

읽기			수학			과학		
국가명	평균	전체 국가순위	국가명	평균	전체 국가순위	국가명	평균	전체 국가순위
8·5·1·2(중국)*	555	1~2	8·5·1·2(중국)*	591	1	8·5·1·2(중국)*	590	1
싱가포르	549	1~2	싱가포르	569	2	싱가포르	551	2
마카오(중국)	525	3~5	마카오(중국)	558	3~4	마카오(중국)	544	3
홍콩(중국)	524	3~7	홍콩(중국)	551	3~4	에스토니아	530	4~5
에스토니아	523	3~7	대만	531	5~7	일본	529	4~6
캐나다	520	4~8	일본	527	5~8	핀란드	522	5~9
핀란드	520	4~9	대한민국	526	5~9	대한민국	519	6~10
마셜랜드	518	5~9	에스토니아	523	6~9	캐나다	518	6~10
대한민국	514	6~11	네덜란드	519	7~11	홍콩(중국)	517	6~11
폴란드	512	8~12	폴란드	516	9~13	대만	516	6~11
스웨덴	506	10~19	스위스	515	9~14	폴란드	511	9~14
뉴질랜드	506	10~17	캐나다	512	10~16	뉴질랜드	508	10~15
미국	505	10~20	덴마크	509	11~16	슬로베니아	507	11~16
영국	504	11~20	슬로베니아	509	12~16	영국	505	11~19
일본	504	11~20	벨기에	508	12~18	네덜란드	503	12~21
호주	503	12~19	핀란드	507	12~18	독일	503	12~21

싱가포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1세기 지식산업의 변화에 걸맞는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패턴을 도입하였다. 1997년부터 '생각하는 학교(Thinking Schools)와 배우는 국가(Learning Nation)'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업 성적보다는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창의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수업 시간을 전체적으로 10% 내지 30%를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학생들은 여유 시간을 미술·음악·체육 등 예체능 교과목과 야외탐사·작문·사진촬영 등 다양한 클럽활동 참가로 보내고 있다. 수업 방식도 기존 교사들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학생들 각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3~5명씩 조를 이루어 팀워크(team-work)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에도 지금까지는 우수한 학업 성적이 유일한 기준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미국식의 수학적성시험(SAT) 성적·프로젝트 성취도·과외활동 실적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세계 수준의 대학교육

국가경쟁력 세계 1위 자리를 놓고 미국과 다투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일찍부터 인적자원의 질적 고도화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정책 개발과 집중적인 투자로 직업교육과 함께 국가 엘리트를 육성해 왔다.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매우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연계를 통하여 교육의 성과가 교육의 최종 목표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싱가포르는 미국 시사주간지『News week』가 2006년 8월 13일 개방성·다양성·연구성을 기준으로 선정 발표한 100대 글로벌대학 반열에 싱가포르국립대학교(36위)와 난양기술대학교(71위) 등 두 대학을 올려놓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세계대학 순위에서는 싱가포르국립대학교가 11위, 난양기술대학교가 12위를 차지하였다. 16년만에 싱가포르 대학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는 36위, 고려대 74위, 연세대 79위를 차지하였다.

싱가포르의 각급 대학들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해외 두뇌를 최대한 활용할 목적으로 일찍부터 유능한 외국인 교수를 대거 채용해 왔다. 지난 1990년 초부터는 세계 일류급 외국대학과의 전략적 제휴나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교육개혁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는 이미 영연방국가 내의 최고 수준인 옥스퍼드 대학교나 캠브리지대학교 또는 호주국립대학교와 동급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2006년 현재 싱가포르국립대학교·난양기술대학교·국립교육원·싱가포르경영대학교·싱가포르경영원 등 5개의 대학 교육기관이 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SNU: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는 1823년 싱가포르를 건설한 스탬퍼드 래플즈(Stamford Raffles)가 세운 교육기관의 후신이다. 국립종합대학인 SNU는 2003년 9월 현재 학부에 23,000여 명과 석사와 박사과정에 9,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타 대학도 비슷하지만, 특히 SNU의 단과대학에는 단 한 명의 정교수(professor)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대학의 정교수는 학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정부의 장관급 경력과 국영기업체의 임원급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각 단과대학에는 7~8명 정도의 부교수(associate professor)가 있고 그 아래는 모두 강의전담교수(lecturer)로 구성되어 있다.

난양기술대학교 (NTU: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는 1955년 동남아 최초로 중국어를 수업 언어로 하는 난양대학(Nanyang University)으로 출발하였고, 1981년에 이르러서 정부의 막강한 재정지원 하에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배출하는 실용학문기관으로 탈바꿈하였다. 정부시책이 큰 성과를 얻으면서 대학의 규모와 학문 분야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1991년 오늘날의 난양기술대학교로 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학은 2001년 현재 15,000여 명의 학부생과 5,500여 명의 석박사과정생이 재학하고 있다. 세계 굴지의 이공계 대학들과 긴밀한 학문적 연계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립교육원(NI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은 NTU의 산하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사 양성기관이자 현직 교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과내용 연구기관이다. NIE는 GCE A level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의 학사학위 취득 과정과 GCE A level 합격자와 폴리테크닉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위한 2년제 교육디플로마 과정이 있다. 또한, 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초등 및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1년간의 교육디플로마 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싱가포르 교육정책의 밑동인 NIE는 교사 양성과 연수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의 지속적인 지식 향상과 상급자격 획득을 위해서 인문학·교육학 및 제반 과학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원 과정도 병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대 10년간 초·중등교사 중 대학원 졸업자가 31%에서 53%로 증가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싱가포르 정부의 대대적인 교육예산 확충으로 같은 기간 내에 교사와 학생의 비율도 초등학교는 1:26에서 1:25로, 중등학교는 1:22에서 1:19로 줄었다.

또한 1999년부터는 모든 교육시설의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1년까지 약 60%가 개선되었고, 지난 2005년까지 100%가 완료되었다. NIE는 또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대대적인 예산지원으로 초등·중등·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각종 교재를 심의 제작하여 배포하며, 이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막강한 권한의 상설 심의기구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경영대학교(SMU: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는 2000년 1월 싱가포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개교한 사립대학으로 경영학·회계학·경제학·정보시스템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세계적인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제휴를 통하여 세계 일류의 비즈니스맨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례로 미국 펜실바니아대학교의 와튼 스쿨(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이 SMU의 개교 이래 이곳에 분교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약 4,700명의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학은 2007년 8월 법학 분야를 신설하고 재학생 규모를 석·박사과정생을 포함하여 최대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 캠퍼스로 이전하였다.

2005년 개교한 싱가포르경영원(UniSIM: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University)은 SMU 졸업생들의 폭발적인 인기와 사회적 수요에 따라 이를 모방하여 만든 싱가포르 최초의 완전한 사립대학이다. 이 대학은 현재 6,500명의 재학생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5년 이내에 20,000명 수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연구 분야 확장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개방대학 성격으로 출발한 이 대학은 기존의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재교육을 통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직능교육과 사회인으로서의 교양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학위과정 이외에도 단기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 수여하는 디플로마 과정 특정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각종 이수증서를 수교하는 과정도 개설하고 있다. UniSIM의 교과과정은 현재 사회과학 분야·경영 및 무역 분야·인문학 분야·기술 및 자연과학 분야 등 네 분야로 나뉘어져있다.

2003년 8월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를 국제교육거점(Global School House)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계 굴지의 대학교육기관들을 싱가포르로 유치하고, 한국·중국·일본·인도·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의 해외 유학생들을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이들의 계산에 의하면, 2025년 700만 명에 달하는 해외 유학생 중 아시아계의 비율이 7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싱가포르에는 와튼 스쿨 이외에도 MIT공과대학교·존스홉킨스대학교·민헨공과대학교를 포함하여 10여 개의 세계적인 대학들이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산하의 관광위원회(STB)는 이미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교육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홍보전략구축에 착수하여 '싱가포르 교육(Singapore Education)'이라는 홍보 브랜드를 내놓고 중국·인도·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싱가포르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촉망받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해외 유학에 내보내고 있다. 정부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리관유 재단(Lee Kuan Yew Foundation)이나 고켄썬 재단(Goh Keng Swee Foundation)이 해외로 향한 우수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학업 성적과 봉사활동 등을 기준으로 매년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을 기준으로 5명 내지 10명 미만의 대통령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이들이 주요 수혜 대상자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소정의 절차를 거친 명문대 출신의 명문가의 자녀들도 세계와 겨루며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예비 지도자들로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한다. 이들이 원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부와 재단이 공동으로 지원하고, 이들에게 국가의 장래를 의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금의환향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중에 탈락하는데, 국가에 실망을 안긴 이들은 자살하기도 하고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 이민 길에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재단을 두드리는 젊은이는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최고 엘리트 계층은 공무원 사회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공무원 임용시험 제도가 없다. 인재 양성을 위한 정교한 교육제도를 통해서 유능한 공무원 후보자들을 일찍부터 발굴하고 장학금을 지급해서 육성한다.

국가관과 적성 및 능력을 전 교육과정을 통해서 거듭거듭 검증받는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각급 학교 교사들의 추천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골간을 이룰 공무원 후보자들은 국가공무원의 장기수급 계획에 따라 해당분야의 교육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특권계층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특권을 남용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철저한 사전 교육도 병행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교육은 국가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100대 글로벌대학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거꾸로 매년 7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20만 명의 유학생과 또 다른 20만 명 수준의 해외 연수생을 내보내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한국은 9만 명에 육박하는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서 인도·중국·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유학대국이 되었다.

국가를 대신하여 국제경쟁력을 찾아 나선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서울을 방문했던 시춘평(施春風)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 운영이 간섭받고 제약받으면 세계 무대에서 우수 대학들과 경쟁하기 힘들다'는 고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SNU와 NTU 등 두 글로벌 대학이 2006년 7월 법인화를 단행하여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6. 싱가포르 IT 산업

가. 산업 특성

1) 기술 및 산업 동향

- 인공 지능(AI)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11월, 5개 분야(운송 및 물류,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교육, 안전 및 보안)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연구개발에 주력해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AI 실용화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다. 화물의 수요예측, 질병예방, 국경의 통관절차, 학생 능력에 맞는 교육시스템, 공공주택의 유지관리 서비스 등 중점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청(Cyber Security Agency, CAS)은 2021년 10월 '사이버 전략 2021'을 발표하였다. 싱가포르 사이버 전략 2021은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 구현, ▲국제 사이버 협력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 사물인터넷(IoT)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통신산업 (Communications)의 시장규모는 2022년 5억 6,700만 미국달러로 약 4%성장이 예상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싱가포르의 커뮤니케이션 시장이 글로벌 시장성장세(3%)보다 빠른 7%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IoT 시장규모는 2022년에 11억 싱가포르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IMDA는 전망했다.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거액의 투자, 빅데이터 분석/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이슈

- 2025년 5G 네트워크 구축 목표

싱가포르는 2025년 까지 싱가포르 전역에 2개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현지 이동통신사 싱텔(Singtel)과 스타허브-M1의 합작회사가 구축할 예정으로 싱텔은 2020년 9월 스타허브에 이어 두 번째로 5G 시범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 SMART NATION

싱가포르 정부는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의 지역본부 및 데이터센터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 및 미디어 허브로서의 위치를 강화해오고 있다.

- 뛰어난 인프라로 성장 유망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는 전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스마트폰 보급률 또한 '19년 기준 78%에 달한다. 전국 4G 및 LTE 보급률은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3) 산업 현황

- 글로벌 기업 진출 활발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 IT 기업들이 다수 진출한 가운데, 중국 IT기업 신규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동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격전지로서 싱가포르가 급부상하고 있다. 참고로,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플릭스 등이 싱가포르에 아태지역 본부를 두고 있다. 또한, 중국 IT기업인 바이트댄스, 텐센트, 알리바바 모두 싱가포르 디지털뱅크 운영 라이선스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동남아 핀테크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Zoom 등이 싱가포르 내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보통신서비스 업체 현황

	업체 수(개)	비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 컨설팅	9,408	66.7
정보서비스	1,572	11.1
모션 픽처, 라디오 & TV	1,437	10.2
출판	856	6.1
텔레커뮤니케이션	832	5.9
전체	14,106	100

- 정보통신기술업 고용 현황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8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시스템 분석, 데이터 과학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 등 1만 8000여 개의 일자리 및 기술교육 기회가 있다고 밝힌바 있으며 싱가포르 내 이 같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직(ICT professionals)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노동부에 따르면 '20년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임금 평균(중위값)은 월 6,000싱가포르달러(싱가포르 전체 평균 4,600싱가포르달러) 수준이다.

4) 싱가포르 IT 산업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뛰어난 디지털 인프라 및 우수한 IT 인력 - 지리적 요충지 및 정치 경제적 안정성으로 글로벌 IT허브로 급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내수시장 - 글로벌 업계 포화로 경쟁 심화
Opportuniti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경쟁 반사이익으로 인한 싱가포르 투자 유입 - 글로벌 기업의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동남 아사업 확대 -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및 고용악화 -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 사이버공격의 위협

6) 유망분야

- 코로나19로 장기화되는 비대면 생활로 인해 디지털 생태계가 급성장하며 헬스케어, 물류, 재택근무 및 생산성 관련 IT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5G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싱가포르 내 5G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무선자동차와 클라우드 게임,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활용 분야의 성장이 유망하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정보통신 시장에서의 업체 다양성 정책을 고수하면서 외국기업과의 협력과 투자유치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게다가 현지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업체 모두 하드웨어나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에릭슨(Ericsson), 노키아(Nokia), 화웨이(Huawei) 등 해외 업체의 5G 장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말 및 부품 관련 우리 업체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 순창교육지원청
글로벌 학생해외연수 자료집



기간	2023. 5. 29.(월) ~ 6. 2.(금)
집결장소/시간	순창교육지원청 / 5. 29.(월) 07:50
학교/성명	_____중학교 / 성명 : _____
모둠/역할	/
인솔교사/연락처	/
내가 타는 버스 국내/국외	차량번호() / 차량번호()